

15일 Market Index			
↑ 코스피	2860.92	↑ 코스닥	852.88
	(+3.92)		(+2.51)
↓ 금리 (미국 9년)	3.076	↑ 환율 (원-달러)	1383.05
	(-0.025)		(+7.25)



공사비 급등에 조합원 분담금 눈덩이... 강남도 수익원

신반포2차 조합원 분담금 4억 이상
원가상승 등에 공사비 올렸지만
분상제 규제로 분양수익 제자리

재건축 사업성이 좋다는 서울 강남에서도 조합원의 분담금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공사비는 급등한 반면 분양가 상한제로 일반분양 수익이 제자리에 머물면서다.

한강변에 위치해 '알짜 단지'로 꼽히던 신반포2차아파트(이하 신반포2차)의 경우 재건축 후 면적을 줄여가도 조합원이 수익원의 분담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서울시보 '신반포2차 정비구역·정비계획결정(변경) 고시'에 따르면 기존 전용면적 92㎡를 가지고 있는 조합원이 재건축 이후 84㎡를 받으려면 4억1100만원의 분담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비슷한 94㎡로 가려면 분담금이 6억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됐다.

신반포2차는 1978년에 준공한 단지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기존 1572세대에서 최고 49층, 2057가구로 탈바꿈하는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신반포2차는 단지가 한강변을 따라 길게 자리잡고 있어 재건축을 하면 대부분의 세대가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 한편으로는 반포대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단지가 '래미안원베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차 아파트 주변에는 현대건설과 롯데건설, 대우건설 등이 정비계획(변경)고시를 축하하는 현수막을 걸었다. /안상미 기자

리'며, 오른편으로는 '아크로리버뷰'가 위치해 있다.

입지가 워낙 좋은 데다 용적률 199%로 사업성이 좋을 것이라 예상과 달리 분담금 추정치가 높게 나왔다.

가장 작은 전용 68㎡를 가지고 있는 조합원이라면 전용 65㎡를 선택해도 4억6100만원을 내야하고, 전용 84㎡를 받고 싶다면 10억2900만원의 분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기존 가장 큰 평형인 전용 150㎡ 조합원도 전용 112㎡부터 추가 분담금이 발생한다.

재건축 비용은 늘어났지만 분양수익은 그대로다. 조합원 분담금이 예상보다 크게 웃돈 이유다.

신반포2차 조합은 최근 원가 상승 등을 감안해 공사비를 기존 3.3㎡당 750만원에서 950만원으로 올렸다. 이와 함께 용적률 완화 등 혜택을 받기 위해 공공청사와 임대주택을 기부채납키로 했다.

반면 일반 분양가 예상가는 조합원과 같은 3.3㎡당 7500만원으로 분담금 산정에 반영됐다. 인근 시세는 3.3㎡당 1억원을 크게 웃돌지만 분양가 상한제 규제가 적용되는 만큼 올리기가 쉽지 않다. 인근에 분양을 앞두고 있는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역시 분양가가 3.3㎡당 6700만원선에서 결정됐다.

정비계획고시와 함께 재건축이 본격화된다고 보면 된다. 이미 신반포2차 단지에는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롯데건설 등이 정비계획고시를 축하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수주전을 예고했다.

조합은 바로 시공사 선정 절차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연내 시공사 선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최대한 많은 시공업체들의 입찰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공능력 평가순위 10위 이내 시공사들에게 입찰참여 공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신반포2차 전용 107㎡는 지난달 40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초복 더위, 삼계탕으로 날려요"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초복인 15일 서울 중로구에 위치한 한 삼계탕 식당을 찾은 시민들이 줄을 서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케이뱅크·더본코리아 등 'IPO 대어' 줄대기

하반기 코스피 상장 도전 기업 증가
증시 유동자금 풍부, IPO 활기 전망

하반기 코스피 상장에 도전하는 조 단위 기업이 증가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 증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증시 유동자금이 풍부해 기업공개(IPO) 시장이 당분간 활기를 띠 것으로 전망했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케이뱅크, 산일전기, 더본코리아, 전진건설로봇, 에이스엔지니어링, 롯데글로벌로지스, LS이링크, MNC솔루션 등 다수의 기업들이 연내 코스피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지난달 말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에 상장 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했다. NH투자증권, KB증권,뱅크오브아메리카

(BofA)가 상장 주관사를 맡았다. 업계에서는 케이뱅크가 상장 후 46조원 안팎의 몸값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몸값을 인정받는다면 HD현대마린솔루션을 누르고 올해 최대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저장장치(ESS) 솔루션 기업 에이스엔지니어링은 다음 달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에이스엔지니어링의 시가총액은 5000억원 규모다. 키움증권과 NH투자증권이 공동대표 주관사로 선정됐다. 거래소 심사 신청에서 통과까지 2~3개월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내 상장이 가능하다는 평가다. 방산기업 MNC솔루션도 연내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4월 KB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했다. MNC솔루션은 최근 주목받는 방산 분야의 기

업인 데다 기업가치가 1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기업 계열사도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전기차(EV) 충전소 사업을 벌이는 LS그룹의 LS이링크도 조만간 거래소에 상장 예심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상장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다. 현재 시장에서 거론되는 LS이링크의 기업가치는 1조원 수준이다.

콘크리트 펌프카 제조기업 전진건설로봇도 다음 달 유가증권시장 입성을 목표로 IPO를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용 변압기 제조업체인 산일전기는 기관투자가 대상 수요예측을 진행 중이다. 오는 18~19일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 청약을 진행한 후 이달 말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2면에 계속)

/원관희 기자 wkh@

HD한국조선-STX重 기업결합 가격인상 제한 등 조건부 승인

공정위, 선박용 엔진 경쟁제한 우려
최소수량보장 등 3년 간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가 HD한국조선해양의 STX중공업 기업결합에 대해 국내 선박용 엔진 시장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HD한국조선해양이 STX중공업의 주식 35.0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3년간 선박용 엔진 부품(CS)의 공급거절금지, 최소수량보장, 가격인상제한, 납기 지연금지를 부과하는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은 선박-선박용 엔진-엔진 부품 등 조선업 전반에 걸쳐 수직계열화를 달성한 기업집단 HD현대가 선박용 엔진-엔진부품 사업자인 S

TX중공업과 그 자회사인 한국해양크랭크사프트(KMCS)를 인수하는 결합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결합회사가 경쟁사인 한화엔진과 STX엔진에 선박용 엔진 핵심 부품인 크랭크사프트를 공급하지 않아 엔진을 생산하지 못할 현실적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과거 국내 엔진 제조사들은 크랭크사프트를 직접 생산하거나 특정 업체와 전속적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으나, 2018년 한화엔진과 두산에너빌리티의 계열관계가 종료되면서 한화엔진이 두산에너빌리티로부터 크랭크사프트 100%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던 구조에서 20%는 KMCS로부터 공급받는 구조로 변화됐다.

(2면에 계속)

/세종=한용수 기자 hys@

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이재명, '종부세 완화' 비판에 "다양한 입장 조정이 정치" /사진 뉴스스
▲ 오세훈 "이재명 '기분사회'는 반(反)청년... 미래세대 부담 언급도 없어"

▲ 시민단체, '채해병 특검법 거부' 윤 대통령 공수처 고발
▲ 민주 "김여사 명품백 반환 지시, 눈 가리고 아웅... 믿을 국민 없어"



▲ 원희룡, 반한동훈 총결집 주장... "특검 막기 위해 뭉쳐야" /사진 뉴스스
▲ 통일부 "북, 대북전단 소각 사진 공개, 매우 이례적"

간 오가노이드 독성시험법 개발 동물대체시험법 국제표준화 나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줄기세포융합센터 손명진 박사팀
OECD와 함께 세계 첫 개발 착수
개발 시험법 국제표준 등재 협력



손명진 책임연구원
생명연 줄기세포융합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KRIBB, 생명연)이 간(肝) 오가노이드(장기유사체)를 활용한 동물대체시험법의 국제 표준화에 나섰다. 간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독성시험법이 개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제안으로 참여하는 것이어서 한국이 오가노이드 표준화를 선도한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더한다.

생명연은 줄기세포융합연구소 손명진 박사팀이 식품의약품안전처, OECD와 함께 세계 최초로 간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독성시험법 개발에 착수한다고 15일 밝혔다.

OECD는 지난 4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국가시험지침 프로그램 조정자 작업반 회의(WNT)'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간 오가노이드를 이용한 간 독성 평가방법에 대한 상세검토보고서 작성'을 신규 개발 프로젝트로 채택했다. WNT는 시험가이드라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회의로, 매년 정기회의에서 시험가이드라인 제·개정 및 신규 프로젝트를 승인·관리한다.

상세보고서 작성에는 OECD 사무국

이 직접 참여한다. 생명연은 이번 신규 프로젝트 선정에 계기로 우리나라가 개발한 오가노이드 기반 시험법이 국제 가이드라인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세부 정보와 시험법 등을 포괄적으로 OECD 사무국에 제안하고 개발에 협력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생명연은 오가노이드 분야에서 다수의 우수성과를 바탕으로 지난 2022년부터 식약처 '독성평가용 오가노이드 플랫폼 개발 연구' 사업을 주관하며 첨단 독성평가 시험법 개발에 힘써오고 있다.

오가노이드는 줄기세포나 장기 기원 세포로부터 분리한 세포를 3차원 배양하여 실제 장기의 구조와 기능을 모방한 세포 집합체를 뜻한다. 기존 독성 평가는 동물실험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실험동물 희생'이라는 윤리적인 문제는 물론, 사람과의 유사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었다.

오가노이드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인체 장기를 모사해 동물모델의 한계 중 하나인 종(種) 간 차이를 극복할 수 있어 동물 대체시험이나 신약개발, 재생치료 분야 등에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생명연은 최근 우리나라 식약처 및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의약품 임상시험 승인 시 오가노이드 등을 활용해 수행한 비동물·인체생물학 기반의 비임상시험 자료제출이 허용된 것을 계기로 간 오가노이드 기반의 간독성, 약효평가 서비스를 8월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생명연에서 개발하여 OECD 테스트 가이드라인에 제안한 간 오가노이드를 활용하여 간독성 평가, 간 질환 치료제 스크리닝, 치료제 효능평가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생명연의 손명진 박사는 "오가노이드가 임상 전 단계인 임상 0상 플랫폼으로 활용되기 위해선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정확한 평가결과 도출을 위해 시험법과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충분한 참고물질 결과를 바탕으로 신뢰성 있는 평가결과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생명연 김장성 원장은 "생명연은 우리나라가 개발한 오가노이드 기반 시험법이 국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험법 표준화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尹, 영동·논산 등 5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달 말까지 합동조사 후 추가 예정
"장마 끝날때까지 긴장 놓아선 안돼"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충북 영동, 충남 논산·서천, 전북 완주, 경북 영양 입암면 등 5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소식을 전하며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사전 피해조사가 완료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합동조사 등을 실시해 선포기준을 충족하면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계획이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기록적인 폭우로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해서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이번 주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되므로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응급복구, 피해조사 등을 실시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사전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번 주에도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또 다시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다"라는 보고를 받고 "장마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전했다. /서예진 기자 syj@

"상반기 IPO 누적 청약증거금 214조 기록"

>> 1면 '케이뱅크·더본코리아...'서 계속

백종원 대표가 운영하는 식품기업 더본코리아도 하반기 기업공개에 도전할 예정이다.

올 상반기에는 공모주 투자 열기가 높아진 가운데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에도 공모 시장의 흥행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상반기 유가증권 2곳, 코스닥 27곳 등 29개사가 상장했으며, 공모 금액은 1조6711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상장기업은 4개사 감소했지만 공모 규모는 6000억원 가량 늘었다. 상장 기업들의 시초가는 공모가 대비 평균 124%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평균 상승률이 67.8%인

것을 감안하면 2배 가까이 상승했다. I B 업계 한 관계자는 "대어급 IPO 기업들이 줄줄이 상장을 대기하고 있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IPO 시장 상승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유동성 자금이 증가세에 있는 점도 공모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분석이 나왔다. 증시 주변자금인 투자자예탁금과 종합자산관리계좌(CMA)는 최근 각각 60조원, 80조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박세라 대신증권 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IPO 기업의 누적 청약증거금은 214조원을 기록했다"며 "투자자예탁 자금과 CMA 잔고가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 건 IPO에 긍정적 요인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한양증권, 68년만에 1000억 M&A로 등장

"한양학원서 지분매각 추진 중
대상자·금액·방식 등 아직 미정"

KCGI·LX그룹·우리금융그룹
현재 유력한 인수후보로 거론



지난 3월 27일 임재택 한양증권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이 창립 68주년을 기념해 최초의 본점인 위치한 명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양증권

학교법인 한양학원이 한양증권 경영권 매각을 추진하면서 한양증권의 주가도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강세다. 설립 68년 만에 매물로 등장한 만큼 하반기 인수·합병(M&A) 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유력한 인수 후보들이 언급되고 있다.

한양증권은 15일 공시를 통해 "자사 최대주인 학교법인 한양학원에 확인한 결과, 지분매각을 추진 중"이라며 "다만 매각의 대상자, 금액, 방식 및 일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결정되거나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1개월 이내 또는 구체적 사항이 결정되는 시점에 재공시하겠다는 부연이다. 이번 공시는 지난 12일 한국거래소가 한양증권에 최대주주 등 지분 매각 추진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에 따른 것이다.

이날 한양증권의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7.53% 상승한 1만5000원에 마감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장중에는 1만7210원까지 올랐으나 점차 상승 폭이 축소됐다. 시가총액 역시 이날 오전 기준 1775억원에서 장 마감 이후 1916

억원까지 늘어났다. 현재 한양증권의 최대주주인 한양학원의 지분율은 지난 3월 말 보통주 기준 16.29%이며, 특수관계인 포함 시 40.99%를 차지한다. 한양학원 측 지분율에 대한 매각가는 1000억~15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양학원은 최근 사모펀드(PEF) 운용사, 금융지주사 등과 접촉해 한양증권 인수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유력한 인수후보로는 KCGI, LX그룹, 우리금융그룹이 거론되고 있지만 당사자들은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양학원은 산하 건설사 한양산업개발과 한양대병원 등에 유동성을 공급하고자 이번 매각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양산업개발은 부동산 프

젝트파이낸싱(PF) 부실의 여파로 지난해 496억1900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한양증권의 주가는 앞서 12일에도 경영권 매각 검토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9.07% 올랐다. 현재 7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지난 5일부터 주가가 32.15% 뛰었다. 이날 한양증권우 역시 6.24% 급등했으며, 지난 9일부터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양증권은 기업금융(IB), 채권 운용 부문에 강점을 두고 있는 강소 증권사다. 지난해 기준 자기자본은 4898억원으로, 국내 증권사 기준 30위권에 속한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462억9475만원, 당기순이익은 351억4171만원을 기록하면서 호실적을 거뒀다.

/신하은 기자 godhe@

"결합 목적은 유지, 경쟁사 안전장치 마련"

>> 1면 'HD한국조선...'서 계속

그러나 이번 기업결합으로 STX중공업이 HD현대중공업의 계열회사로 편입되고, 한화엔진의 엔진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면 그 수효는 100% 경쟁자인 결합회사쪽으로 전환될 것이므로, KMCS가 한화엔진에 크랭크샤프트 공급을 거절할 유인이 증가하게 된다.

이같은 판단에는 한화엔진이 다른 곳에서 크랭크샤프트를 조달하기 쉽지 않은 상황도 고려됐다. 한화엔진의 주 공급처인 두산에너지빌리티의 경우, 공장 가동률이 포화상태에 달했고, 크랭크샤프트와 같은 공장에서 생산하는 원전 주기의 수요 증가로 크랭크샤프트 생산을 증대시킬 여력이 충분하지 않았다.

또 중국산 크랭크샤프트는 품질, 운송비, 납기 안정성 등 측면에서 대체가 쉽지 않고, HD현대중공업의 경우 크랭크샤프트를 외부에 판매하지 않으므로, 한화엔진 입장에서 KMCS가 유일한 대체공급선이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KMCS가 결합 후 한화엔진 등 경쟁 엔진사에 크랭크샤프트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하더라도 불리한 가격 또는 납기로 공급하게 될 경우, 경쟁 엔진사의 엔진생산에 차질이 발생해 결합회사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이에 공정위는 3년 동안 경쟁 엔진사의 안정적인 크랭크샤프트 공급이 가능하도록 공급거절 금지, 최소수량 보장, 가격인상 제한, 납기 지연 금지 등 안전장치를 마련했고, 향후 시장상황을 고려해 필요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심사는 친환경 엔진 투자 등을 통한 전세계 엔진 시장에서 경쟁력 강화라는 당초 결합회사 목적은 유지하되, 경쟁 엔진사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국가 기간산업인 조선업과 관련 중간재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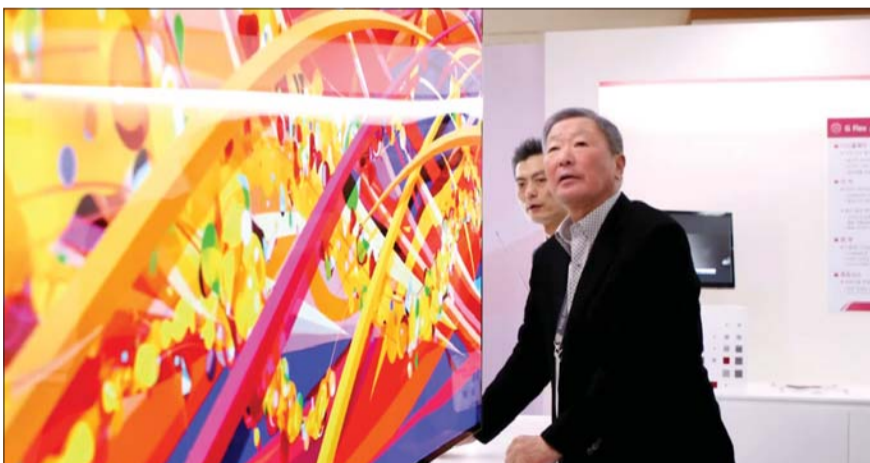
지난 1995년 2월 22일 LG 회장 이취임식에서 구본무 선대회장이 LG 깃발을 흔들고 있다.



지난 1995년 10월 구본무 회장(왼쪽 두 번째)과 허창수 당시 LG전선 회장(세 번째)이 LG전자 평택공장을 찾아 라인을 점검하고 있다



지난 2002년 5월 구본무 회장(가운데)이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



지난 2014년 3월 연구개발성과보고회에서 구본무 회장이 연구과제인 LG전자 올레드 TV를 살펴보는 모습.



지난 2015년 12월 미국 LG사이언스파크 건설 현장에서 구본무 회장(가운데)과 하현회 (주)LG 부회장(오른쪽)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LG

‘인재·기술·글로벌’ 독심경영 160조 초우량기업 ‘LG’ 결실



구 본 무 LG그룹 선대회장

“경영여건이 어려워질수록 경쟁력 확보의 핵심이 되는 우수인재 확보와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는 더욱 과감히 집중해 나가야 합니다”

무려 20년간 실무 경험을 쌓고 제 3대 회장에 올라선 구본무 선대회장은 지금의 LG그룹을 탄생시킨 장본인이다. 그는 LG의 비장의 무기인 배터리 사업을 탄생시킨 인물이다. 구 회장은 50대의 늦은 나이에 취임한 만큼, ‘독심경영’을 발휘하며 영속기업 LG의 기반을 탄탄히 마련할 수 있었다.

럭키금성 사명 변경… LG 재탄생 이차전지 등 미래신사업 적극 도전 2017년 사상 최대실적 160조 달성

◆20년간 실무경험 쌓아 LG브랜드 탄생시켜

구 회장은 1995년 2월 22일 그의 나이 50세에 부친인 구자경 명예회장이 은퇴하며 LG의 제 3대 회장으로 취임하게 된다. 특히 이날 취임식은 구자경 2대 회장의 이임식과 함께 진행했는데, 재계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는 구 회장이 LG그룹의 경영문화를 충실히 습득했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다.

구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사업구조 재편으로 ‘초우량 LG’를 구축하겠다고 선언하며 그의 경영철학인 ‘독심’을 공공히했다.

구 회장의 경영철학은 지금의 LG가 탄생하는 데서부터 비롯됐다. 그는 취임 직전 ‘럭키금성’을 LG로 기업 이미지(CI)를 바꾸고 LG 브랜드를 탄생시키는 데 주도한 인물이다. 당시 사명 변경을 두고 많은 반대가 있었는데, 막대한 비용이 예상되는 데다 ‘럭키’와 ‘골드스타’의 입지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당시 부회장이었던 구 회장은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을 위해 사명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CI 변경을 추진한다. 이후 1995년 1월 1일 럭키금성을 ‘LG 브랜드’로 대내외에 알리면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게 된다.

◆불모지 배터리 사업 개척…캐시카우 창출

특히 구 회장은 현재 LG의 캐시카우(현금창출원)인 배터리 사업을 도입했다. 구 회장은 1990년 대 초 당시 영국에서 충전식 2차 배터리를 접한 뒤 불모지나 다름 없던 배터리 사업에 도전했다. 그는 2차 전지 샘플을 직접 가져와서 럭키금성 속 배터리 연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기반 사업이나 지식이 없어 굉장히 어려웠음에도 구 회장은 독심있게 사업을 밀어붙였다.

LG에 따르면 배터리 사업은 2000년 대 초에도 2000억원 가까이 적자를 기록해 내부에서 “사업을 접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자 구 전 회장이 “포기하지 말고 길게 보자. 꼭 성공한다는 확신을 갖고 다시 시작하자. 여기에 우리 미래가 있다”고 임직원들을 다독였다고 한다.

이후 구 회장은 경제불황 속에서도 연구개발(R&D)에 적극 나섰고, 그 결과 전기차 배터리 등 중대형 2차전지 분야에서 LG는 강자로 자리매김했다. 현재의 LG화학은 이를 발판 삼아 탄생한 주요 계열사로 꼽힌다.

실제 이방수 LG에너지솔루션 사장은 지난 7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LG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확보와 오너 경영의 역할’ 세미나에서 “1992년도에 이차전지를 시작해 수십 년이 지난 현재 한 산업을 이끌어가는 씨앗이 됐다”며 “이같은 산업은 배터리, 반도체, 자동차 등이 있는데 모두 오너들이 긴 안목을 갖고 투자하고 독심 있게 이끌어간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에 구 회장은 회장 취임 당시 매출액 30조원 규모에서 2017년 좁은 사상 최대 실적인 160조원을 달성했다. 특히 이는 GS, LS 등을 계열분리한 이후 다섯 배 이상 성장시킨 것으로 비약적으로 신장시킨 셈이다.

◆3대 핵심 사업군 육성 집중 ‘인재 발굴’ 강조

특히 구 회장은 취임 후 경영철학으로 ‘신뢰와 독심’을 연이어 강조했다. 경영환경이 어려워 수록 선제적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미래 성장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한다는 지론이다.

이에 구 회장은 제 2의 경영혁신을 강도 높게 추진한다. ‘전자, 화학, 통신서비스’ 3대 핵심 사업군을 집중 육성해 LG를 글로벌 기업으로 키운 것. 특히 가전, 전자 등 주력사업을 목표로 선제적인 투자를 집중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사업으로 이끌었다.

이 과정에서 구 회장은 LG가의 경영이념인 사업보국, 국민민복(國民民福)을 실천하게 된다.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해외 시장을 개척하면서 국가 경제 발전에도 기여한 것.

실제 구 회장도 LG가 영속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신념을 바탕으로 한 인재 육성과 R&D를 폈다. 구 회장은 공식 석상에서 신뢰와 인재 관련 발언을 빠뜨리지 않았다.

그는 지난 2007년 신년사와 2008년 컨센서스 미팅을 통해 각각 “경영환경이 어렵다고 사람을 안 뽑거나 함부로 내보내서는 안됩니다”, “시련 극복의 과정을 통해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인간존중 경영의 참 뜻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라며 인재 육성에 대한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인재확보 위해 매년 테크노 컨퍼런스 참석 ‘전자·화학·통신’ 3대 핵심사업 집중 육성 해외시장 개척… 사업보국·국민민복 실천

특히 구 회장은 2011년 LG인재개발대회에서 최고경영진들에게 “좋은 인재가 있다면 회장이라도 직접 찾아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후 구 회장은 2012년 R&D 인재 확보 차원에서 시작한 ‘LG 테크노 컨퍼런스’에 매년 빠짐없이 참석했다, 불참한 시기는 건강 악화로 병상에 누워있던 2017~2018년 뿐이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

국민연금, 2027년부터 적자전환... 2055년엔 '고갈 위기'

3년 뒤 보험료 수입으로 감당 불가
저출산·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베이비부머 은퇴'로 수급자 늘어
2027년에는 3조3000억 적자 전망
전문가들 "보험료율·수급 연령 상향"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전경. /뉴시스

오는 2027년부터는 국민연금 납입액만으로 연금 지급액을 감당할 수 없을 전망이다. 국민연금 1세대 가입자인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 출생)가 퇴직하면서 연금 지출이 가파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료율 인상 등 연금개혁 없이는 오는 2055년이면 기금이 바닥난다는 우려적인 관측도 나온다.

15일 국민연금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5조6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국민연금 보험료 수지(국민연금 가입자가 낸 금액에서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은 금액을 뺀 액수)가 오는 2027년에는 3조3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감소세로 전환할 전망이다.

이는 700만명에 달하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정년을 맞아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에서 연금을 받는 수급자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이 기간 동안 2205만명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2155만명으로 50만명 감소하는 반면, 736만명이었던 수급자는 917만명으로 181만명 늘어난다.

올해 국민연금 기금 적립 규모가 1100조원에 달하며 기금 운용 수익률도 평균 연 5%대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수지 적자가 곧바로 연금 규모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기재부의 재정계산 결과에 따르면 오는 2040년 국민연금 보험료 수지 적자는 72조원에 달할 것으로, 기금 운용 수익만으로는 충당할 수 없을 전망이다. 또한 오는 2055년부터는 기금이 전부 소진돼, 부족분을 세금으로만 충당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기금소진을 늦추기 위해

연금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수급 연령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현행 보험료율(9%)을 상향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라며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12%로 인상하면 2063년, 15%로 인상하면 2071년, 18%로 인상하면 2082년까지 기금 소진을 늦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7세였던 기대수명이 2020년 83.5세까지 늘었고, 오는 2070년에는 91.2세에 이를 전망"이라며 "노동시장 개선을 통해 고령자가 계속 근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개시 연령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금개혁을 주도해야 할 정치권은 개혁 방향성을 놓고 대립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앞서 여·야는 오는 9월 1일 개최하는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서 연금개혁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구조를 함께 개혁해야 한다는 여당

과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우선 개혁하는 야당 간의 견해차가 분명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연금제도 존속을 위해서는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감소에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OECD는 '2024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연금제도의 지속을 위해선 OECD 최저 수준인 현행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안을 통해 소득대체율도 높여야 한다"며 "연금 수급 연령이 퇴직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인 수급 연령도 늦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일·가정이 양립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고,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해결해야 한다"라며 "이민 확대를 통해 고용 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 만큼,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해 숙련자 중심의 이민을 확대하고, 열악한 저숙련 이민자 환경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갤S24 울트라로 센강 개막식 생중계... 상젤리제션 신형 체험까지”

삼성전자, 갤럭시 언팩 2024

80척 배에 갤럭시S24 울트라 200대 동원
역대 최대규모 '팀 삼성 갤럭시' 꾸려
상젤리제 체험관서 즉석인화 이벤트

“40년 가까이 올림픽 공식 파트너로 활동한 삼성전자는 수많은 올림픽을 지원해왔으며,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도 모바일 AI와 함께 수많은 '최초'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2024파리 올림픽은 삼성전자가 대거 장식한다. 센강에서 개최되는 개막식에서 갤럭시 S24 제품으로 올림픽 생중계를 선보인다. 특히 역대 최대 규모의 '팀 삼성 갤럭시(Team Samsung Galaxy)' 선수단을 꾸리고 올림픽 참가 선수들에게 'Z플립6 올림픽 에디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림픽 역사상 최초로 선수들은 자신의 수상 장면을 직접 촬영할 수 있게 된다.

◆삼성 갤럭시 S24, 센강에서 올림픽 생중계한다

삼성전자는 올림픽 역사상 최초로 야외에 위치한 센강(Seine River)에서 개최되는 개막식에서 갤럭시 S24 울트라 제품으로 새로운 올림픽 중계를 선



삼성전자 MX사업부 마케팅팀 박정미 상무가 지난 1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삼성전자의 올림픽 파트너십 활동 등을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보일 예정이다. 삼성전자 MX사업부 마케팅팀 박정미 상무는 “현장감 있게 중계하기 위해 약 80척의 배에 갤럭시S24 울트라 제품 200대 이상을 동원한다”며 “특히 센강에서 개최되는 만큼 어떤 기상 조건에도 연결을 유지하고, 고화질 영상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실전 테스트와 연구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오는 19일부터 2024 파



(위쪽부터) 삼성전자 올림픽 체험관에서 갤럭시 Z플립6를 활용해 촬영한 즉석 사진과 스트랩 만들기 체험존에서 만든 스트랩. /구남영 기자

리 올림픽·패럴림픽 참가 선수 전원에게 '갤럭시 Z 플립6 올림픽 에디션'을 제공한다. 이에 IOC는 역사상 최초로 삼성전자가 지급한 선수용 폰에 한해 선수들이 수상 장면을 직접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특히 선수가 직접 찍은 수상 장면은 올림픽 방송 서비스(OBS)를 통해 송출됨으로써 전 세계 올림픽 시청자들이 삼성 스마트폰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삼성 폰에 대한 홍보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삼성전자는 올림픽 홍보대사인 '팀 삼성 갤럭시(Team Samsung Galaxy)' 선수단을 구성했다. 팀 삼성 갤럭시는 24개국, 63명으로 구성됐으며 규모 면에서 역대 최대다.

대한민국 선수는 신유빈(탁구), 김예리(브레이킹), 서채현(스포츠 클라이밍) 등이 포함됐다. 해외 선수는 요한 디페이(프랑스, 서핑), 스카이 브라운(영국, 스케이트보드), 그레이스 씨니 최(미국, 브레이킹) 등이 명단에 올랐다.

◆“파리 시민도 삼성 즐기세요”

삼성전자는 파리 상젤리제 거리에 삼성 체험관을 꾸리고 파리 시민들의 일상에도 녹여준다. 2024 파리 올림픽·패럴림픽 삼성 체험관은 건축계의 노벨상 '프리츠커상' 수상자인 프랑스 건축가 장 누벨과의 디자인 협업을 통해 구축됐다.

체험관은 여행을 테마로 한 시원한 파란색으로 디자인됐다. 입구에는 삼성전자가 1998년 나가노 동계 올림픽부터 올림픽 파트너로 참여한 만큼, 입구에는 올림픽이 열렸던 해에 판매됐던 휴대전화가 전시됐다.

특히 이목을 끌었던 프로그램은 갤럭시 Z플립6를 이용해 셀프 사진을 찍고 이를 즉석 인화해주는 행사였다. 캐리어 가방 형태로 디자인된 카메라 거치대 위에는 갤럭시 Z 플립 6가 놓여있었다.

관람객은 해당 갤럭시 Z플립 6의 '오토 줌' 기능을 활용해 셀프 사진을 찍을 수 있었는데, 최적의 사진 구도를 만들어 주는 것은 물론 손바닥을 펴면 자동 촬영이 가능했다. 특히 사진을 찍은 후에는 올림픽 마스코트 '프리주(Phryge)'를 삽입해 화면을 꾸밀 수 있었다.

무엇보다 신형 폴더블폰인 '갤럭시 Z 폴드6·플립6' 등이 배치돼 자유롭게 체험하고 비교할 수 있었다. 특히 전시 공간 옆에는 이번 갤럭시 Z6 폴더블폰에 새로 탑재된 실시간 통번역 기능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다.

화면에 나오는 AI인간을 통해 대화할 수 있었으며, 질문을 하면 번역된 텍스트와 음성지원을 통해 실시간 대화를 할 수 있다. 기자가 화면 앞에 설치된 폴드6 폰을 통해 “2024년 파리 올림픽에는 몇명이 방문할 것 같나요?”라고 질문하니 화면에 나온 AI인간은 “1500만명이상이 방문할 것 같다”고 답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서울시,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용적률 최대 110% 완화

‘도시계획 조례’ 20년 만에 전면 개정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용도지역 변경 없이도 용적률을 기존의 최대 110%까지 상향 적용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생활물류 증가에 따라 2종 일반주거지역의 근린생활시설에도 주문·배송시설을 허용했다.

서울시는 ‘도시계획 조례’를 20년 만

에 전부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용적률을 정하는 경우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용적률 완화 규정을 중첩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했다.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지역은 조례에서 정하는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10%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물류시설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

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주문배송시설이 추가됨에 따라 도심 내 생활 물류 증가에 대응,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주문배송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준치 기간 연장 횟수도 정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은 연장 횟수 제한이 없

으며,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은 1회로 규정했다.

시는 지난 2000년 도시계획 조례를 최초로 만들고 20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전부 개정 이후 20년 만에 대대적으로 손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시계획 조례는 현재까지 100회에 걸친 개정이 이뤄지면서 신설 조항과 삭제된 조항, 다양한 예외 조항 등이 혼재돼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그간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통합성을 갖추는 한편, 조례의 복잡한 구성 체계를 전면 재정비했다. 해석이 모호한 문구나 용어·표현을 명확하게 수정하고, 조례 전부 개정으로 종전 부칙 규정이 실효됨에 따라 필요한 부칙을 신설했다.

이날 공포된 개정 조례는 오는 10월 14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용적률 규정과 주문배송시설 허용, 지구단위계획 내 가설건축물 준치 기간 연장 횟수는 공포 즉시 시행된다. /김현정 기자 hjk@



NH농협금융

스타트업이 성장하도록,
NH가 손을 보겠습니다

기술력이 있어도, 잠재력이 있어도,
 투자가 어려운 스타트업에겐 금융의 손길만큼 절실한 것이 또 있을까요?
 NH농협금융은 오픈 비즈니스 데이와 디지털 챌린지를 통해 스타트업에게 금융 지원은 물론, 다양한 교류 및 협력을 지원합니다
 스타트업이 안정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NH농협금융이 손잡고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NH농협금융

NH농협은행 NH농협생명 NH농협손해보험 NH투자증권 NH-Amundi자산운용 NH농협캐피탈 NH저축은행 NH농협리스운용 NH벤처투자 NH농협카드

元 “韓, 중대범죄 의혹” vs 韓 “네거티브 공세 대응 최소화”

대전·세종·충북·충남 합동연설회

元 “韓, 여론조성·댓글팀 운영 의혹 사법리스크로 당대표 수행 어려워”
韓 “전대 혼탁 막고 화합 이끌 것”
나, 元·韓 비판하며 “尹 지키겠다”



나경원, 원희룡, 한동훈, 윤상현(왼쪽부터)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15일 오후 충남 천안시 유관순체육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 대전·세종·충북·충남 합동연설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시스

“최근 한 후보가 법무부장관 시절, 우호적 여론을 만들기 위한 여론조성팀이 있었고, 심지어 댓글팀까지 있었다는 폭로와 보도가 있었다.”

원희룡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15일 오후 충남 천안시 유관순체육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 대전·세종·충북·충남 합동연설회에서 이런 발언을 하자 원희룡 후보의 지지자들은 함성을 질렀다. 반면, 한동훈 후보의 지지자들은 거친 야유를 보냈다.

원희룡 후보는 주최측 추산 3000명이 운집한 합동연설회에서 한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여론조성팀과 댓글팀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중대범죄행위”라며 “드루킹 사건을 떠올리시면 이해가 되실 것”이라고 한 후보를 겨냥했다.

그러면서 “야당도 당장 한동훈특검법에 이 내용을 추가해 특검을 하자고 한다. 저는 이 특검, 반대한다”면서도 “하지만 한 후보가 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도 이 중대한 사법리스크로 인해 정상적인 당대표직 수행이 불가능하지는 않을까”라며 의문을 품었다.

원 후보는 “저는 특검을 막고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승리하는 국민의힘을 만들겠다.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당원 여러분께 당을 돌려드리겠다”며 “상향식 공천, 반드시 하겠다. 밀실공천, 듣보잡 공천, 사천, 완전히 없애겠다”고 한 후보의 사천 의혹을 언급했다.

원 후보는 연설 후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의 댓글팀 운영 의혹에 대해 “저는 아는 것이 전혀 없다”며 “저도 뉴스를 보고 알게 됐고 일반 당원들이 걱정하는 수준에서 같이 걱정한다”고 했다.

지지율이 약세인 상황에서 다른 후보

(나경원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선 “당을 다시 한번 당정 총돌과 당내 분열, 야당의 탄핵 음모에 대통령을 결국 던져넣는 것을 막는 정도는 세 후보가 (입장이) 똑같아서 필요하면 힘을 합칠 수 있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밝힌 바 있다”고 했다.

한동훈 후보의 연설은 원희룡 후보 다음 차례였다. 한동훈 후보가 발언을 이어가자 1층 객석에서 소란이 일어났다. 관객이 한 후보에 대한 비판을 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 물리적인 충돌도 일어났다.

연설을 이어가던 한 후보는 이를 보고 “우리는 이견을 존중하는 정당이다. 이견을 통해서 정답을 찾아가는 정당”

이라며 “진정하고 자리에 앉아 달라”며 관중에게 요청할 정도였다.

한 후보는 원 후보의 계속되는 네거티브 공세에 대응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 저는 근거없는 마타도어에 대한 대응을 스스로 최소화함으로써 전당대회가 더이상 혼탁해지는 것을 막겠다”며 “부당한 싸움을 모두 이겨내고 당의 화합을 이끌어 내겠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도 연설 후 기자들과 만나 댓글팀 운영 의혹에 대해 “저는 아는 바가 전혀 없다. 자발적인 지지자들이 댓글을 단 것이 잘못된가”라며 “자발적인 지지의사를 폄하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혹시라도 돈을 주고 고용했다거나 팀을 운영한 것이 전혀

없다”고 했다.

또, 한 후보의 연설 중 발생한 관객 소요에 대해 “국민의힘이 이 정도 수준을 가진 정치 집단이 아니다”라며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세력”이라고 했다. 이어 “당 대표가 되면 이견을 치열한 토론과 민주적 합의 절차를 통해서 풀고 정답을 찾을 것”이라고 했다.

한 후보는 나머지 주자들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후보들의) 자유”라며 “어떤 정치 공학이나 정치 기술이 민심과 당심의 흐름 꺾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나경원 후보는 연설에서 “대권욕심 때문에 대통령과 각세우고 분열하는 사람, 국정농단 당무개입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라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혐의받은 단어다. 그 단어 스스로 없이 말해서 이제명 민주당에 빌미 주는 후보 불안하지 않나”라며 한 후보에게 각을 세웠다.

또, “갑자기 나온 후보도 마찬가지로. 그런 후보가 대통령에게 할 말 하겠나”라며 “저 나경원이 하겠다. 대통령 잘하는거 딱딱 밀어드리고 잘못하는거 쓴소리 팍팍해서 윤석열 정부 성공시키고 윤석열 정부 지키겠다”며 원 후보도 비판했다.

/천안(충남)=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韓 지지자 “단일화 해봤자” vs 元 지지자 “하면 좋겠다”

전대 선거인단 투표 D-3

2·3위 주자, 나경원·원희룡 후보 막판 변수 ‘단일화’ 놓고 신경전
나·윤 지지자 “단일화 안 했으면”



국민의힘이 15일 충남 천안시 유관순 체육관에서 주최한 대전·세종·충북·충남 합동연설회 시작전 모습.



대전·세종·충북·충남 합동연설회 시작전 원희룡 후보 지지자들이 응원전을 펼치고 있다. /박태홍 기자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인단 투표 시작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자 한동훈 당 대표 후보를 견제하기 위한 2~3위 주자 나경원·원희룡 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이 구체화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는 1차 투표에서 과반 이상의 득표율을 얻은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결선투표가 실시되기 때문에, 단일화는 선거 막판 유일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충남 천안시 유관순체육관에서 15일 오후 열린 국민의힘 대전·세종·충북·충남 합동연설회에서 만난 4인의 당 대표 후보자의 지지자들에게 단일화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합동연설회가 열리기 1시간 전부터 4인의 당 대표 후보자를 지지하는 열기

는 후끈했다. 각 후보의 지지자 캠프 천막을 중심으로 열띤 응원전을 펼쳤다. 각 캠프가 사용한 천막 수는 한 후보 6동, 나 후보 4동, 원 후보 4동, 윤상현 후보 2동이였다.

한 후보 캠프는 지지자들이 한데 모여 피켓을 들며 한 후보의 등장을 기다렸다. 나 후보의 지지자들은 장구 12대와 심벌 12대를 동원해 유명 트로트 곡에 맞춰 응원을 펼쳤다. 원 후보도 장구 10대를 들여와 리듬을 맞췄다. 윤 후보

캠프는 두 줄로 인간 피를 만들어 윤 후보의 입장을 기다리는 모습이였다. 이날 주최 추산 3000명의 지지자와 국민의힘 관계자가 행사장에 운집했다.

한동훈 후보를 지지한다는 유 모씨(60대) “강력한 힘과 리더십을 갖춘 김철 출신 한 후보가 국민의힘의 당 대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씨는 나 후보와 원 후보 간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 “단일화를 해봤자 진보세력에 대항하기 위해 보수 진영이 이미 한 후

보 쪽으로 마음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나경원 후보의 얼굴이 그려진 대형 피켓을 들고 있던 지지자는 “나 후보는 우리나라 최고의 여성 정치인”이라며 “다른 후보들도 훌륭하지만, 나 후보가 당 대표가 돼야 한다”고 했다. 원 후보와의 단일화 이야기를 꺼내자 그는 “단일화할 필요 없다”며 “나 후보가 당 대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원희룡 후보의 이름이 써진 깃발을 들고 지지자들의 등판에 커다란 스티커

를 붙여주던 한 지지자는 원 후보를 “국민의힘에 제일 적합한 후보”라고 표현했다. 단일화에 대해선 “향후에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윤상현 후보 진영 측에서 응원을 이끌고 있던 한 지지자는 윤 후보에 대해 “다른 후보들은 법조인들이지만, 윤 후보는 경제통”이라며 “유능한 당 대표이자 일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이 지지자는 윤 후보의 능력이 출중하기 때문에 단일화를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앞선 지지자들의 바람처럼 한 후보는 1차 투표에서 과반 이상의 득표율을 얻어 선거를 끝내는 것이 목표다. 2~3위 주자인 나 후보와 원 후보는 단일화 가능성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원 후보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굳이 이런 얘기를 별로 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정치는 생물이야. 돕게 되면 나 후보가 저를 돕게 될 것”이라고 했다. 나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위적인 단일화는 아니겠으나, 지금까지의 여론 추세 등의 비춰 저를 지지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했다. /천안(충남)=박태홍 기자

추경호, 野 상설특검 검토에 “꼼수정치 점입가경”

비상대책위원회서 野 비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 민주당이 순직해병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의 재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우회할 수 있는 상설특검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민주당의 꼼수정치가 점입

가경이다. 날마다 새로운 꼼수가 등장한다”고 15일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지난주에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지 않고 청원을 심사하는 형식으로 탄핵청문회를 연다고 하더니, 이번엔 상설특

검을 통한 채 상병 특검을 추진하면서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위원회 중 국회 추천 몫 4인을 여야가 2인씩 균형있게 추천하는 방식에서 4인 모두를 야당이 추천하도록 국회 규칙을 개정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제 상설특검까지 민주당 마

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다”며 “노벨 꼼수법 개발상, 노벨 막가파식 국회 운영상이 있다면 매년 민주당과 개발(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내놓은 당상”이라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렇게 국회 규칙을 개정한다면 이것은 법대리가 아니라 위법하고 위헌적”이라며 “법망을 빠져나가는 탈세가 합법이 아니듯, 탄핵소추를 추진하고 특검 추천권을 독

점하는 것은 위헌이고 위법이고 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국회 규칙 개정이 허용되면 중립적으로 특검을 임명토록 하는 법률은 필요 없고 모든 것을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마음대로 결정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것은 과거 독일이 패망으로 몰고 간 나치식 일당 독재와 같은 식”이라고 부연했다.

/박태홍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밤 늦게도, 휴일에도 365일 꺼지지 않는 하나돌봄 어린이집

신청구분 | ①365일형: 24시간 ②주말·공휴일형: 토/일요일, 공휴일 9시~18시
신청방법 | 하나돌봄365 홈페이지(www.hanadolbom365.com)



돌봄 신청하기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 하나자산신탁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안전운전 하면 보험료 할인... 보험사, UBI상품 시장 활성화

(사용량기반보험)

DB손보-네이버와 안전운전 특약 안전점수 71점, 최대 20.8% 할인 캐롯손보, 할인 쌓이는 굿드라이브 독창성 인정 '배타적 사용권' 획득 UBI시장 성장 위해 외부협력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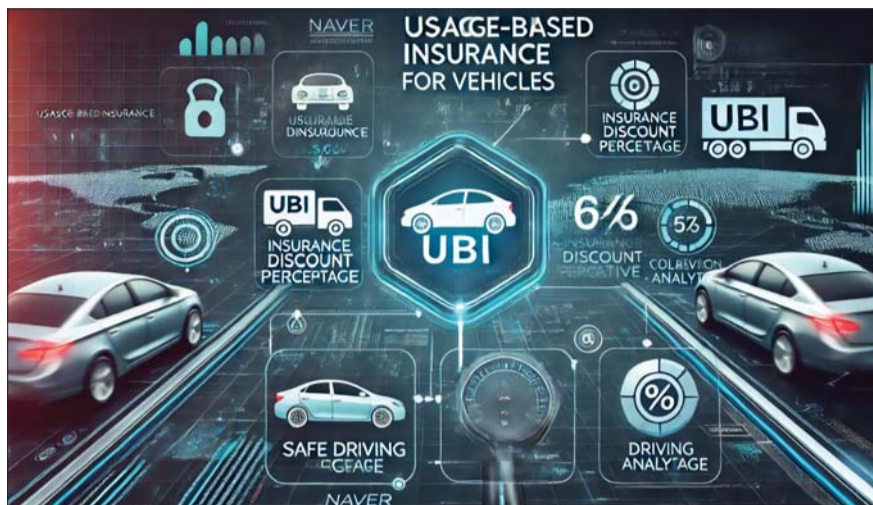
보험업계가 관련 업체와의 협력 강화 및 보험료 할인 등으로 사용량기반 보험(Usage-Based Insurance·UBI) 상품 시장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UBI는 차량 주행거리 또는 안전 습관 등 주행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책정하는 사용량기반보험이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특약 형태의 UBI 상품을 출시하고 주행거리 또는 안전운전 할인 등으로 보험료 할인을 제공해 관련 시장 확대를 꾀하고 있다.

UBI 시장은 안전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 적용 대상 장치 및 소비자 인식 확대 등으로 점차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천지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과 임석희 연구원은 "일부 보험사에서만 제공하던 안전운전 특약이 최근 대부분의 주요 보험사로 확대돼 국내 UBI 시장은 점차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DB손해보험은 지난 1일 업계 최초



ChatGPT에 의해 생성된 '사용량 기반 보험(UBI) 개념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이미지

로 네이버와 내비게이션 기반 안전운전 UBI 특약 상품 출시 등 보험상품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내비게이션 기반 안전운전 UBI 특약 상품은 네이버 지도의 내비게이션 데이터를 활용해 운전 습관을 분석한다. 최근 6개월 내 500km 이상 주행 이력이 있고 '운전분석 페이지' 메뉴에서 안전점수가 71점 이상일 경우 최대 20.8%의 보험료를 할인 받는다.

UBI 특약으로 운전자의 안전의식 고취 및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전망이다. 나아가 네이버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운전 데이터를 통해 DB손해보험은 고객 맞춤형

보험 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캐롯손해보험은 안전운전 할인 특약으로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안전운전 달성 횟수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하는 '할인이 쌓이는 굿드라이브 특약'이 배타적 사용권 6개월을 획득했다.

캐롯손해보험은 지난 6월 첫 심의에서는 배타적 사용권 획득에 실패한 바 있다. 당시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 위원회는 캐롯손해보험 특약의 독창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캐롯손해보험은 일부 수정을 거쳐 업계 최초로 자동차 보험기간 중 안전운전 달성 횟수에 따라 할인 보험료를 산출하고 정산 환급하는 제도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했다. 손해보험협회의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최초 결정을 뒤집고 캐롯의 새로운 제도 및 서비스의 독창성과 진보성을 높게 평가해 배타적 사용권 6개월을 부여했다.

캐롯손해보험은 "손보 업권 통틀어 자동차보험 종목에서 4년4개월만에 첫 배타적 사용권이 부여됐다"며 "이번 배타적 사용권 부여가 재심의 과정 끝에 이뤄진 점도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보험업계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 UBI 상품 시장 활성화에 나서면서 외부업체와의 협력이 중요할 것이라 제언이 나온다.

UBI 상품 가입은 안전운전자의 보험료 할인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안전운전에 대한 유인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UBI 가입이 가능한 대상 차량 확대 및 다양한 평가 요소 반영을 위한 데이터 확보 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

천 연구위원과 임 연구원은 "UBI 상품 도입 후 청구건수가 12% 감소하는 등 안전운전에 대한 보험료 할인이 사고율을 낮추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보험사는 안전운전 점수를 산정하기 위한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해서 외부업체와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카드 News

신한카드

해외 0.5%포인트 적립 쏠트래블신용카드 출시

신한카드가 쏠 트래블 체크카드를 기반으로 신용카드를 출시했다.

◆ 공항라운지 연간 3회 무료

신한카드는 해외여행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는 '쏠트래블 신용카드'를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해외 모든 가맹점에서 일시불 이용금액의 0.5%를 마이신한 포인트로 적립한다. 전월 이용 실적과 관계없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월 최대 5만 포인트까지 적립할 수 있다.

국내 모든 가맹점에서 이용한 금액의 0.5%를 마이신한포인트로 기본 적립한다. ▲여행 ▲교통 ▲쇼핑 ▲맛집 ▲운동 영역에서는 사용금액의 1.5%를 추가로 지급한다. 단 추가 적립은 전월 국내 이용금액 40만원 이상일 경우 제공한다.

KB국민카드

KB손보 해외여행보험 신규가입 5000포인트

KB국민카드가 성수기인 7월을 맞아 해외 이용 고객 대상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 전세계 공항라운지 이용권

KB국민카드는 '휴가의 시작은 트래블러스와 함께하세요'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오는 12월 31일까지 KB페이 행사 페이지에서 KB손해보험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면 최대 5000포인트를 증정한다. 납입보험료 건당 최대 10%까지 적립할 수 있다.

같은 기간 전 세계 스타벅스에서 원화환산금액 5000원 이상 결제하면 이용금액의 20%를 포인트로 돌려준다.

NH농협카드

온라인 명품 소비 현황 거리두기 해제 후 32% ↓

NH농협카드가 조사한 결과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이후 온라인 명품 매출이 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온라인 명품 소비 유행 분석

NH농협카드는 '소비트렌드인사이드 보고서·온라인 명품 소비 현황'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온라인 명품 소비 감소폭은 ▲이용금액(32%) ▲이용건수(38%) ▲이용 고객 수(41%) 순으로 나타났다. 모두 30% 이상 감소했다.

여성보다 남성의 소비 변화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33%) 대비 남성(45%)의 이용건수 감소폭이 더 가파르다.

20대와 30대 이용고객수가 각각 63%, 38%로 크게 줄었다. 반면 60대의 경우 이용 고객 수는 3%로 소폭 증가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가상자산 과세 유예' 무계... "문제점 보완 후 시행해야"

구체적 가이드라인·법률 미비 선부른 과세에 투심 냉각 우려

내년 1월 1일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추가유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성급하게 시행할 경우 시장에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문제점 보완 후 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15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달 말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 담은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는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투자로 얻은 소득 중 연 25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 세율로 매기는 세금이

다. 예를 들어 한 해 동안 비트코인으로 1000만원의 수익을 냈다면 250만원을 뺀 750만원의 20%에 해당하는 15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소득이 25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과세되지 않는다.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2022년 1월 시행 예정이었다. 그러나 과세 시스템이 미비하고 투자자 보호에 대한 제도가 부재한 것 등을 이유로 두 차례 미뤄지며 오는 2025년 1월로 시행이 유예됐다.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과세 유예에 다시 무게가 실리고 있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구체적인 관련 가이드라인이나 법률, 제도적 기반 등이 미비한 상태로, 선부른 시행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먼저 가상자산의 경우 현재로서는

정확한 소득금액을 추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가상자산은 주식시장과 다르게 24시간 운영되고 있고 초단위로 가격이 변하기 때문에 과세당국이 제시한 취득원과 실질적 소득을 산정하는 방안이 따라가지 못한다.

또한 탈중앙화 거래소 등을 통한 경우 최초 취득가격을 추적하기 어렵고, 여러 거래소를 거칠 경우 지급 주소와 거래내역을 거래소에서 수집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다.

해외거래소 이용은 탈세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도 문제다.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포함시켰지만 협조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결국 투자자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필요하기 때

문에 탈세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이다.

오는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1단계가 시행되긴 하지만, 투자자 보호 중점이기 때문에 가상자산을 전반적으로 포괄 할 수 있는 법은 없는 상태다. 실질적 규제가 담겨있지 않아 반쪽짜리 법이라는 이야기다. 2단계 법안까지도 많은 시간이 소요 될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거래소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의 투심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선부른 과세는 오히려 시장 분위기를 더욱 얼어붙게 만들 수 있다"며 "가상자산에 대한 법이 시행하지도, 마련되지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이드라인을 구축해 과세에 대한 보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대우건설, 부산 다대3구역 정비사업 수주

692세대 신축... 2143억 규모 부산 랜드마크 단지 조성 예정

대우건설은 지난 13일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일대에 위치한 '다대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다대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은 2만 5838㎡의 부지에 지하 5층~지상 37층 4개동, 692세대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총 공사금액은 2143억원 규모다.

다대3구역은 부산 1호선 낮개역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다. 주변에 대형마트를 포함해 상권과 공원 등이 있어 정주여건이 좋다.

대우건설은 다대3구역에 푸르지오 시그니처 디자인과 푸르지오만의 상징 컬러를 적용한 촉박 디자인 특화, 푸르지오 옥탑 구조물 특화 등을 도입해 부산의 랜드마크 단지로 만들 예정이다. 사업 조건으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최고 신용등급 AAA를 통한 필요 사업비 최저 금리 조달, 입주시 부



부산 사하구 다대3구역 재건축아파트 투지도.

/대우건설

담금 90% 납부 등을 제시해 조합원 자금 부담을 최소화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다대3구역을 부산을 대표하는 명품 단지로 조성하겠다"며 "불량 씨뭉 74, 더비치 푸르지오 씨뭉 등 대우건설은 앞으로도 부산에서 100년을 책임질 주거 명작을 지어

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우건설은 지난 6일 신반포 16차를 시작으로 2주 연속 도시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됐다. 오는 20일에는 마포구 성산 모아타운 1구역 시공사 선정 총회가 열릴 예정이며, 시공사 선정이 유력한 상황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철강업계, 상반기 실적 부진 '수요부진·과잉공급' 이중고

지난해부터 원가 부담 누적
저가 중국산 제품 경쟁 지속
하반기 실적 전망도 어두워

국내 철강업계가 글로벌 시장 부진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장기화로 실적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국발 과잉 공급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면서 올 하반기에도 실적 반등은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철강업계를 이끌고 있는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올해 상반기 부진한 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다. 포스코홀딩스의 2분기 매출액을 18조원, 영업이익을 6996억원으로 전망했다. 매출액은 전년보다 10.4%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47.3%나 감소한 실적이다. 앞서 1분기에는 매출 18조5200억원, 영업이익 583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9%, 17.3% 감소했다.

현대제철도 상황은 비슷하다. 현대제철의 2분기 매출액은 5조7000억원,

영업이익은 525억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0.3%, 88.7%씩 낮아진 수치다. 앞서 1분기에는 매출 5조9478억원, 영업이익 558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각각 6.9%, 82.3% 감소한 수치를 기록했다.

철강업계는 올 상반기 전방산업의 수요 부진 속 늘어나는 수입 철강재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원가 부담이 누적돼 온 상황에 저가 제품들과 경쟁으로 제품가격이 약세를 이어가면서 수익성이 큰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특히 시장 전반에 걸쳐 수요가 부진해 시황 정세로 이어졌다. 고금리 및 실물경기 악화로 국내 건설경기의 위축이 지속됐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철근 내수 판매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했다. 반면 수요 부진에 재고는 40% 늘었다.

문제는 이같은 실적 부진이 하반기로 이어질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철강 부문 부진은 글로벌 경기 침체와 부동산 침체까지 겹치면서 철강

경기 전체가 가라앉은 상태다. 여기에 저가 중국제품 수입이 지속되며 상반기보다 협약이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하반기 미국의 대중국 철강 고관세 부과 시행과 미국 대선 등이 예정돼 있어 중국산 저가 제품의 한국 유입이 확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인도의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철강 수요 증가, 대(對) 러시아 제재 강화 등으로 철광석, 원료탄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 철강업계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한 가운데 원재료와 고정비 상승 등의 부담으로 상반기 부진이 깊어졌다"며 "상반기 가격 인상 노력에도 수익성 개선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 중국 정부의 탄소저감 친환경 정책에 따라 철강 생산 규제가 강화된 만큼 국내 기업의 실적 개선도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양성문 기자 ysw@metroseoul.co.kr



애경케미칼과 조비, 포스코인터내셔널 관계자들이 제품 출고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애경케미칼, 생분해성 완효성 비료 수출

조비-포스코인터 3社 협력

애경케미칼과 조비,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지속가능한 친환경 사업 전개를 위해 힘을 모은다.

애경케미칼은 조비와 공동개발한 생분해성 완효성 비료를 인도네시아에 있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의 팜농장(PT BIA)에 수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와 관련 애경케미칼과 조비, 포스코인터내셔널 3사는 울산에 위치한 조비 공장에서 제품 출고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출을 알리기도 했다.

3사 간 협력은 친환경 밸류체인 구축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수출을 시작으로 친환경 제품 연구개발, 해외 판로 개척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애경케미칼과 조비는 양사의 우수한 기술력이 응집된 생분해성 완효성비료를 해외 시장에 확대 공급해 세계 탄소 배출량 감소에 일조한다는 계획이다. 완효성 비료를 둘러싸고 있는 생분해수지는 미국 농무부(USDA)의 바이오 소재 기반 인증을 획득한 제품으로, 햇빛과 미생물에 의해 이산화탄소와 물로 완전 분해돼 환경오염 걱정이 없다.

애경케미칼 관계자는 "이번 생분해성 완효성 비료 수출은 우리 기술이 적용된 친환경 제품을 해외시장에 선보이고 영역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 있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고객사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전 세계 탄소 저감에 공헌할 수 있는 다양한 친환경 제품 솔루션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LG화학, 오만 해수 담수화 절반 책임진다

오만 구브라 3단계 프로젝트 참여
GS이니마에 역삼투막 2.3만개 공급

LG화학이 오만 최대 담수화 플랜트에 역삼투막(RO멤브레인)을 공급한다. 플랜트가 본격 가동하면 오만 전체에서 담수화하는 물의 절반이 LG화학의 역삼투막을 통해 생산될 전망이다.

LG화학은 오만 구브라(Ghubrah) 3단계 담수화 프로젝트의 설계·조달·시공(EPC)사인 GS이니마에 역삼투막 2만 3000개를 공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역삼투막 2만 3000개는 연간 1억톤(하루 30만톤)의 해수를 담수화해 오만 수도권 인구 250만명이 사용하는 물을 생산할 수 있다.

구브라 3단계 담수화 프로젝트는 수도 무스카트의 해변 지역에 위치한 역

삼투압 방식의 해수담수화 플랜트다. 오는 2027년 1분기에 가동을 시작하면 오만 최대 규모 담수화 시설이 될 예정이다. 역삼투압은 도차가 있는 두 용액을 반투막(멤브레인)으로 분리하고 농도가 높은 쪽에 압력을 가해 물 분자만 통과시키는 방식이다.

LG화학의 역삼투막은 기존 오만 지역에서 하루 47만톤의 물을 담수화해 왔다. 구브라 3단계 프로젝트를 더하면 하루 담수화하는 양은 77만톤에 달한다. 이는 오만 전체 해수 담수화량인 150만톤의 절반 이상이다. 오만은 비가 적게 내리는 사막성 기후에 위치해 담수화를 통한 수자원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중장기 국가계획인 '비전 2040'을 통해 대규모 담수화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 중이다.

LG화학의 역삼투막은 염분 제거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99.89%에 달한다. 담수화에 높은 압력이 필요하지 않아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고, 박막 나노복합체(TFN, Thin Film Nanocomposite) 기술로 나노 입자를 막 표면에 입혀 염분 제거율은 유지하면서도 타사 제품보다 유량(flow)은 20% 이상 많다.

LG화학 형훈 RO멤브레인 사업담당 상무는 "사업 초기부터 오만에서 입지를 다져온 만큼, 오만의 주요한 물 공급원이 될 구브라 3단계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돼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고객사와 함께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물 공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기아, '더 2025 셀토스' 출시... 상품성 개선

고객 선호 편의·안전 사양 기본화

기아는 국내 대표 소형 SUV 셀토스의 연식 변경 모델인 '더 2025 셀토스'를 15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다.

더 2025 셀토스는 고객들이 선호하는 편의 및 안전 사양을 기본화하고 상위 트림에만 있던 고급 사양을 중간 트림까지 확대 적용해 상품 경쟁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기아는 더 2025 셀토스에 ▲LED 리피터 일체형 아웃사이드 미러 ▲전·후방 주차거리 경고 ▲1열 열선 시트 ▲실내 소파기를 전 트림에 기본으로 탑재해 상품성을 한층 높였다. 또 프레스티지 트림부터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을 장착해 고객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벨트라인에 크롬 몰딩을 적용해 역동적인 이미지를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그니처 트림부터 동승석 파워 시트를 추가함으로써 고객 만



기아 '더 2025 셀토스'.

족도를 높였다.

더 2025 셀토스는 신규 내장 컬러를 추가해 고객들에게 다양한 디자인 선택의 기회를 제공한다. 시그니처 트림에는 블랙 가죽 시트를, 그래비티 트림에는 미드나잇 그린 가죽 시트를 추가했다.

더 2025 셀토스의 판매가격(개별소비세 5.0%)은 1.6가솔린 터보 모델 2246만~2790만원이고, 2.0가솔린 모델 2147만~2691만원이다.



유튜브 영상 제공
YouTube

/양성문 기자

LG전자, 유럽 '에어솔루션연구소' 신설

냉난방공조 사업 역량 강화

LG전자가 한국, 미국에 이어 유럽에 '에어솔루션연구소'를 신설했다고 15일 밝혔다. 에어솔루션연구소를 통해 B2B사업의 중요한 축인 냉난방공조(HVAC) 사업 역량을 강화해 유럽 시장을 효율적으로 공략할 계획이다.

LG전자는 유럽 현지 기후에 최적화된 맞춤형 고효율 공조솔루션 연구를 위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에어솔루션연구소를 설립했다. 이곳은 한국 창원, 미국 애틀랜타에 이은 세 번째 글로벌 에어솔루션연구소다.

유럽 에어솔루션연구소는 히트펌프, 스마트홈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현지 인재를 채용해 고성능 중인 유럽 HVAC 시장의 전초기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유럽은 탄소 중립 에너지 정책으로 HVAC 사업의 고성능이 지속되고 있다. LG전자는 2024년 기준 유럽 HVAC 시장 규모를 약 130억 달러로 추정하며, 향후 3년간 약 5%씩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LG전자는 HVAC 사업에서 '현지 완결형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연구개발(R&D)부터 판매와 유지보수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한 LG전자 유럽 에어솔루션연구소 전경. /LG전자

지 모든 단계를 현지에서 수행하며, 북미, 중남미, 유럽, 아시아 등 세계 43개국, 62개 지역에 HVAC 아카데미를 갖추고 매년 3만 명이 넘는 엔지니어를 양성하고 있다. /김서현 기자 seoh@



유튜브 영상 제공
YouTube

/차현정 기자

두산, 과기부 '보안관제 전문기업' 인증

두산의 보안관제 전문성과 수행능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두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증하는 '보안관제 전문기업'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15일 밝혔다.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제도는 국가 및 공공기관의 보안관제 센터 운영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기업임을 증명하는 인증이다. 기술인력, 자본,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국내에는 (주)두산을 포함해 23개사가 보

안관제 전문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다. 지정된 기업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보안관제센터 운영 지원, 전문 인력 파견 등의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번 인증으로 (주)두산 내에서 그룹 전반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T)을 담당하는 두산디지털이노베이션(이하 DDI)이 보안관제 전문성과 수행능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차현정 기자

LS전선, 기술탈취 의혹에… 대한전선 “독점기업 과도한 견제”

대한전선, 해저케이블 탈취 공장 “공장 레이아웃 등 핵심 기술이나 기술탈취 하거나 활용한 바 없어” 무혐의 밝혀지면 민형사상 조치 예정

LS전선이 기술탈취를 주장하는 가운데 대한전선이 반박문을 내놨다.

15일 대한전선은 입장문을 통해 LS전선의 기술을 탈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LS전선은 대한전선의 기술 탈취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사실일 경우 국내외에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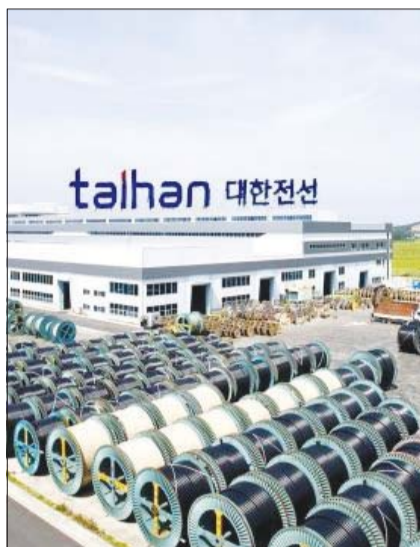
우선 대한전선 측은 해저케이블 공장 레이아웃은 핵심 기술이 아님을 설명했다. 선형구조인 케이블 제품은 중심(도체)에서 바깥(절연체 및 외장 등)으로 공정이 진행되며, 이 순서를 고려해 설비를 배치한다. 해저케이블 설비 역시 동일하며, 생산 CAPA, 공장 부지의 형태 및 크기, 부두 위치 등을 고려해 레이아웃을 결정하게 된다. 때문에 공장 설비 레이아웃은 핵심 기술일 수 없으며, 이런 이유에서 해외 공장들은 경쟁사의 공장 견학을 허락할 뿐 아니라 홈페이지 등에 설비 배치를 공개하는 경우도 있다는 설명이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공장의 레이아웃



LS전선 동해사업장 전경.

/LS전선



대한전선 당진공장 전경.

/대한전선

또한 해외 설비 업체로부터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고 구입할 수 있을 정도로 핵심적인 기술 사항이 아니다”라며 “기술탈취의 목적으로 경쟁사의 레이아웃과 도면을 확보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전선은 LS전선의 영업비밀을 탈취하거나 활용한 바 없음을 명확히 했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대한전선은 수십년간 케이블을 제조하며 쌓아온 기술력 및 해저케이블에 대한 연구를 통해 자체 기술력으로 공장을 건설했다”라며 “대한전선은 위에 언급한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해 수십 번의 내부 검토

및 연구를 거쳐 최종 레이아웃을 결정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1공장 1단계를 건설했다”고 설명했다.

2공장 역시 다양한 후보 부지 별 레이아웃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 과정을 통해 최적의 부지를 선정할 후 최종적으로 유럽 최대 케이블 설비 업체인 M사로부터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받을 예정이다. 가운데 종합건축사무소 경쟁입찰 방식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선정했다고 밝혔다. 가운데 건축은 공장 건물의 공간을 설계하는 업체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공장 설계 경험이 있는 다수의 설계 업체 중, 정성·정

량 평가를 통해 선정했다”라며 “대한전선이 가운데 건축에 먼저 연락해 수차례 설계를 요청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경쟁사의 계약 금액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대한전선은 케이블 설비 공급 경험이 있는 업체에 공정하게 입찰 참여 기회를 부여해 왔을 뿐 LS전선의 주장처럼 동일한 설비 제작 및 레이아웃을 요구한 바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한전선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한 독점기업의 과도한 견제는 중단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해저케이블 시장은 글로벌 전력망 산업에서 가장 장래가 유망한 분야이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민관이 협력하여 집중 육성해야 하는 산업”이라며 “국내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LS전선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대한전선의 시장 진입을 방해한다면, 해저케이블 및 해상풍력 산업에 대한 국가 경쟁력이 약화될 뿐만 아니라 중국 등 해외업체로부터 우리 케이블 시장을 보호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

대한전선은 경찰 조사에 적극 임해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 소명할 예정이다. 혐의가 없다고 밝혀질 경우, LS전선에 민형사상의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KG모빌리티

‘액티언’ 사전계약 시작

KG모빌리티(이하 KGM)가 프로젝트명 ‘J120’으로 개발해 온 신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이름을 ‘액티언(ACTYON)’으로 확정하고 사전 예약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KGM은 오는 8월 출시 예정인 액티언의 디자인을 공개하고 사전 예약을 시작했다. 액티언은 세련되고 다이나믹한 쿠페 스타일의 도심형 SUV다.

차명 ‘액티언’은 KGM이 지난 2005년 세계 최초로 SUC(Sports Utility Coupe) 콘셉트로 선보인 1세대 모델에서 계승했다. 70년 역사를 지닌 정통 SUV 명가로서의 정통성을 있는다는 의미를 담았다.

1세대 액티언을 선보일 당시 이 이름은 젊음을 상징하는 ‘Action’과 ‘Young’의 합성어로 만들었다. 이를 통해 개성과 변화, 도전 등 역동적인 이미지를 표현했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액티언은 은 기존 의미에 ‘Act+Young’과 ‘Act+On’의 의미를 더했다. 젊게 행동하고 활동을 개시한다는 뜻으로 KGM의 새로운 시작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양성운 기자 ysw@

배달의민족, 수수료 9.8%로 인상… 소상공인 ‘속수무책’

시민단체, 수수료 인상 철회 촉구 일방적 약관변경에도 대응책 전무 배민 “인상률 44% 주장은 과장”

배달의민족이 중개 수수료를 3% 인상하자 윤석열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에 대한 적절성 논란까지 일고 있다. 플랫폼의 일방적인 약관 변경에도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의 대응책이 전무한 상황 속에서 아무런 대안이 없다는 주장이다.

15일 시민단체들이 오전 서울시 송파구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수수료 인상 규탄 및 온라인플랫폼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후에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의민족의 상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자영업자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의민족 중개수수료율 인상 철회를 촉구했다. /뉴스

생을 촉구하며 정부와 국회에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들의 독과점 규제를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배달의민족은 지난 10일 기존 6.8%이던 중개 수수료를 9.8%로 3%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상대 인상률로 따졌을 때 44%에 달하는 인상액으로, 단순 계

산으로 따지자면 과거 1만원의 음식을 판매했을 때 수수료를 680원 지불했다면 새롭게 바뀐 정책에 따라서는 980원을 지불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프로모션과 홍보비용, 자체 배달 이용시 드는 추가적인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실질적으로 플랫폼에 지불하는 금액은 전체

판매 비용의 50%를 넘기기에 이른다.

배달의민족 측은 이번 인상과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이번 요금 개편에서는 중개이용료율 인상과 배달비 인하가 함께 적용됐다”며 “따라서 ‘당사가 입점 업주 중개이용료를 44% 인상했다’는 주장은 중개이용료율이 6.8%에서 9.8%로 3%p 변경되는 것만을 반영해 인상분을 과잉하게 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시민단체 측에서는 “배달의민족이 설명하는 내용이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상에 따른 서비스 개선 및 배달 노동자와 업주에 대한 수혜 효과 미미 ▲플랫폼의 수수료 인상에 대한 업주들의 대응책 전무한 상황 등이 이번 사태의 핵심 문제라는 주장이다. /김서현 기자 seoh@



KG모빌리티 액티언 우측면.

LGU+

서울 지하철 9호선 LTE-R 구축 착수

LG유플러스는 이달 서울시 지하철 9호선 철도통합무선망(이하 LTE-R) 구축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15일 밝혔다.

LTE-R은 4세대 무선통신 기술인 LTE를 철도 환경에 최적화된 철도 통합 무선통신 시스템이다. 기관사, 관제실 등 열차를 운행하는데 참여하는 인력이 상호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든다. 기존 음성 통화를 위주로 이용했던 무선통신기술과 달리 빠른 속도를 바탕으로 음성·영상·데이터 서비스가 가능하다. 특히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현재까지 서울시메트로 9호선의 LTE-R 구축 사업은 구간에 따라 총 3단계로 나뉘었다. LG유플러스는 1단계에 해당하는 개화역부터 신논현역 구간에 LTE-R 구축을 진행 중이다. 이어 2·3단계 사업 구간인 인주역부터 중앙보훈병원역 총 13개역사(약 14km) 구간에도 내년 11월까지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구남영 기자

SKT, 반려동물 진단 ‘엑스칼리버’ 북미 진출 KT, 지니 TV 실시간 자막 12개 국어로 확대

뉴온앤니키와 캐나다 지역 유통

SK텔레콤의 인공지능(AI) 기반 반려동물 진단 보조 솔루션이 북미 지역에 본격 진출한다.

SKT는 반려동물 의료장비업체 ‘뉴온앤니키’와 자사의 반려동물 진단 보조 솔루션인 ‘엑스칼리버’를 캐나다 지역에 유통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뉴온앤니키는 캐나다 지역 반려동물 의료장비업체 뉴온이미징과 방사선

장비 및 소프트웨어 제조업체 니키 헬스 솔루션이 지난해 10월 설립한 합작 회사다. SKT ‘엑스칼리버’는 뉴온앤니키의 수의 영상 소프트웨어 ‘스카이라인 PACS’에 연동되는 방식으로 캐나다 내 동물병원 100여곳에 다음달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상용 계약은 캐나다 토론토에서 손인혁 SKT GS AIX 담당과 마크 리틀, PJ 모하이어 뉴온앤니키 공동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됐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몽골어·러시아어 2종 추가

KT는 지니 TV의 실시간 채널 다국어 자막서비스를 기존 10개 국어에서 몽골어와 러시아어까지 2종을 추가한 총 12개 국어로 확대했다고 15일 밝혔다.

‘실시간 채널 다국어 자막서비스’는 한국어로 방송되는 TV 채널에서 시청자가 언어 설정을 통해 자막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서비스다.

KT 지니 TV는 기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필리핀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우즈베크어 10개 국가 언어에서 국내 체류 외국인 수요가 높은 몽골어, 러시아어를 추가해 총 12개의 언어로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19개 실시간 채널 중에서 해당 채널 사업자가 청각 장애인을 위한 자막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에만 이용할 수 있다. 이용을 원하는 시청자는 지니 TV 리모컨에 있는 채널 옵션(三) 버튼을 눌러 ‘자막 설정’ 메뉴로 이동해 ‘자막 방송 On/Off’를 선택하면 된다.

/구남영 기자



칠레 최정상 아이콘 와인 몬테스

방산株, 트럼프 피격사건에 신고가 경신... 배터리株는 '흔들'

LIG넥스원 3.35%, 현대로템 7.51% ↑
전쟁 지속·트럼프 지지율 상승 영향
LG엔솔 3.89%, 삼성SDI 0.66% ↓
트럼프 "바이든 연비규제 폐지" 공언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 피격 사건의 여파가 한국 방산주와 배터리주에 영향을 미쳤다. 방산주는 대표적인 '트럼프 수혜주'로 꼽히며 상승세였지만, 배터리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확률이 높아지면서 하락세를 보였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대표 방산주로 꼽히는 LIG넥스원과 현대로템은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LIG넥스원의 주가는 전장 대비 3.35% 상승한 23만3500원에, 현대로템의 주가는 7.51% 상승한 4만2950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 밖에도 한화시스템(5.63%), 한화 에어로스페이스(4.54%), 한국항공우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각)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대선 유세 도중 암살 시도 충격을 당한 직후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연단을 내려오면서 오른쪽 귀에 피를 흘리는 상태로 주먹을 흔들며 "싸우자"고 외치고 있다. /뉴시스

(0.71%) 등 국내 주요 방산 관련주가 동반 상승세를 보였다.

하인환 KB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 서에서 "트럼프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대한 지원 축소를 주장하

고, 이로 인해 유럽 국가들의 자체적 방어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위비 증액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 외 국가들의 방위비 증액과 방산·우주 종목의 강세를 예상했다.

밸류업 정책 본격화에 예탁금 4兆 급증

코스피 2900선 다가서자 투심 자극
밸류업 기대감... 개인투자자 복귀
野, 금투세·종부세 완화 시사 영향도

개인투자자들의 증시 이탈과 함께 감소세를 보였던 투자자예탁금이 5거래일 만에 급증하면서 코스피 상승 기대감에 힘을 실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금융투자소득세·종합부동산세 완화 기대감도 상반기동안 순매도 태도를 유지했던 개인투자자들의 투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1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투자자예탁금은 57조2311억원으로 일주일 전(53조449억원)보다 4조원 넘게 늘어났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투자자예탁금은 감소세를 보이면서 1일부터 4일까지 4거래일만에 약 5조원이 증발했다. 이는 개인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이탈이 두드러진 결과로 해석된다.

동일 기간 개인투자자들은 1조1560억원을 순매도했다. 5일부터 11일까지도 3조1218억원을 팔아치우면서 순매도세를 지속했으나 12일에는 4550억원을 순매수했다. 8거래일만에 순매수세

로 돌아온 것이다. 국내 증시의 상승 랠리가 이어지면서 코스피 2900까지 바짝 다가서자 투심이 자극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말부터 잠시 주춤했던 코스피는 지난 3일 기획재정부의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와 함께 오르기 시작했다. 11일 코스피는 2891.35를 기록하면서 52주 최고가를 경신했다. 해당 발표에서는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과 더불어 시장이 요구하던 밸류업 세제지원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김성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한국 주식보다 미국 주식이 낫다'는 인식이 만연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인식은 한국 기업들이 주식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며 "기업 밸류업의 필요성에 대한 명분이 강해지고 있는 것은 밸류업 관련 정책, 그리고 이와 연관된 기업의 주가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개인 투자자보다는 외국인 투자자들을 유입하며 증시 상승을 견인했다. 외국인들은 국내 증시에서 지난해 11월부터 8개월 연속 순매수 행진을 보이며 올해 상반기

에만 약 22조9000억원을 순매수했다. 이달에도 12일까지 3조9560억원을 사들이면서 순매수세를 유지하는 등 개인투자자들과는 대비되는 양상을 보였다. 밸류업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개인투자자들도 복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금투세·종부세 완화를 시사하는 점도 개인 투자자 투심 자극에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투자자예탁금이란 투자자가 주식을 사기 위해 증권사 계좌에 맡긴 돈으로 '투자대기성 자금'으로 분류된다. 투자 열기의 가능자라도 활용되는 만큼, 투자자예탁금이 늘어났다는 것은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오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김 연구원은 "지난 10일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이 전 대표가 금투세 도입 시기에 대한 재검토 의사를 피력해 개인 투자자들의 연말 국내 주식시장 이탈 우려가 완화됐다"며 "민주당은 부자감세 반대를 이유로 금투세 유예를 반대해 왔는데, 이러한 기조도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신하은 기자 godhe@

'KB 어게인 바이 코리아' 12개 종목 선정

KB증권, 리서치 보고서 통해
정부 정책 수혜 가능 종목 제시

KB증권은 저평가 대형 우량주의 가치 상승 전망을 기반으로 'KB Again BUY KOREA(KB 어게인 바이 코리아)' 관련 12개 종목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초 자본시장 선진화 대책 발표에서 주주환원을 늘린 기업에게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으면서 밸류업 프로그램의 정책을

구체화했다. 이후 밸류업 프로그램은 주주환원을 확대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 자본시장 개방에 따른 환율 안정 효과, 외국인 유입 확대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KB증권 리서치본부는 지난 12일 'KB전략, 바이코리아 귀환: A gain BUY KOREA' 제목의 리서치 보고서를 통해 정부 정책의 수혜가 가능한 'KB Again BUY KOREA' 종목 12선을 제시하고 투자 가이드를 제공했다. 해당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

스, LG전자, 현대차, 현대모비스, 하나금융지주, 기아, 삼성물산, GS, KT, 삼성화재, 키움증권 등이다.

보고서에서는 일본의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큰 수익을 거둔 투자자들과 일본 주식시장의 상승 기회를 놓친 투자자들에게서 한국 증시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관찰하고, 특히 하반기에는 밸류업 프로그램 정책 추진이 가시화될 때마다 외국인의 매수 강도가 더욱 고조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현재는 정부 정책의 수혜가 기대되는 대형주 중심의 비중 확대가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신한투자증권은 이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목표주가를 기존 24만7000원에서 28만원으로, LIG넥스원의 목표주가를 기존 20만원에서 23만5000원으로 상향했다. 이동현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은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전쟁 지속으로 포탄, 유도 무기 소진으로 인한 소요, K9자주포와 같은 범용 무기 각광, 전차, 군용기 등은 시차를 두고 계약이 확대될 전망"이라며 방산업체의 실적이 호조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국내 대표 배터리 회사들의 주가는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배터리주는 트럼프가 당선되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표적인 '바이든 수혜주'로 언급된다.

LG에너지솔루션의 이날 주가는 전일 대비 3.89% 하락한 35만8500원을 기록했다. 여기에 삼성SDI의 주가는 37만7500원으로 전일 대비 0.66% 떨어졌

으며, 포스코퓨처엠도 전일 대비 1.65% 하락한 26만8500원으로 장을 마쳤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만약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그의 재임 기간 내 전기차 판매는 추가적으로 낮아질 것"이라며 "과거 트럼프 1기 때 연비규제의 사실상 폐지 효과로 2년간이나 역성장했는데, 이번에도 트럼프는 당선 시 첫 해에 바이든의 연비규제를 폐지하겠다고 여러 번 공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유진투자증권은 올해 전기차 판매 추정치를 기존의 194만2000대에서 177만7000대로 하향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피격 사건 이후 급상승했다. 각종 이벤트에 대한 예측을 내놓는 베팅사이트 폴리마켓(Polymarket)에 따르면 트럼프 대선 승리 가능성은 70%로 전날보다 10%포인트 올랐고, 바이든 대통령 승리 확률은 16%에 그쳤다고 발표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자사 베트남법인(KIMVN)이 한화생명 베트남법인과 손잡고 베트남 변액보험 시장에 진출한다고 15일 밝혔다. /한국투자신탁운용

한투운용, 베트남 변액보험 시장 진출

한화생명 베트남법인과 '맞손'
국내 자산운용사 중 최초 위탁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자사 베트남법인(KIMVN)이 한화생명 베트남법인과 손잡고 베트남 변액보험 시장에 진출한다고 15일 밝혔다. 국내 자산운용사가 베트남에서 변액보험 상품을 위탁운용하는 것은 KIMVN이 최초다.

KIMVN은 한화생명 베트남법인의 위탁운용사로서 이날 변액보험 신상품을 출시한다. 지난 3일 KIMVN은 베트남 변액보험 시장 진출을 위해 한화생명 베트남법인과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다. 해당 상품의 주요 투자처는 고배당·성장주식형 펀드다. 편입 펀드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목표로 유동성이 우수하고, 배당수익률이 시장수익률을 상회하며 성장성이 높은 '중대형주'에 투자한다.

이번 출시를 통해 한화생명 베트남법인은 기존 주식형 변액보험 상품에 이은 두 번째 상품을 선보인다. 신규 상품을 시작으로 KIMVN과 한화생명 베트남법인은 한화생명 변액보험 고객에게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제공할 계획이다. /허정윤 기자

유안타증권, 올해 상반기 1.4兆 펀드 판매

출범 이후 반기 기준 최대 성과

유안타증권이 상반기 펀드 판매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유안타증권은 올해 상반기 지점 소매 영업을 통해 총 1조4584억원의 펀드를 판매(MMF 제외)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2014년 10월 유안타증권 출범 이후 반기 기준 최대 성과다.

특히 상반기에만 7700억원의 공모주펀드를 판매해 누적 잔고 약 1조6000억원을 달성했다. 초단기 채권형펀드도 4400억원가량 판매했다.

유안타증권 관계자는 "공모주 투자와 함께 다양한 전략을 가미한 '공모주

+알파전략'의 공모주펀드를 엄선해 적극 제공하고, 탄탄한 리테일 고객층을 보유한 영업점 PB들의 노하우에 힘입은 성과"라고 설명했다.

뤼즈평 유안타증권 대표이사는 "국내 펀드 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거둔 성과라 더 값지다"며 "앞으로도 시장 트렌드와 고객 수요에 적합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해외 공모주까지 투자 라인업을 확대하고, 해외 대체자산군 등의 공급도 강화하는 등 유안타증권만의 차별화한 상품으로 고객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함으로써 고객 자산이 양적,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중소기업 2題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중소기업계 간담회를 가졌다. (앞줄 왼쪽 2번째부터)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김덕재 IT여성기업인협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육아휴직 활용 부담 안되게 지원강화·노동규제 완화를

중기중앙회-저출산고령사회위 간담회 대체인력 확보 지원 등 건의사항 전달

중소기업계가 일·가정 양립을 위한 환경 조성 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나가기로 했다.

다만 전체 일자리의 81%를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정부의 추가 지원 강화와 적극적인 노동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유관 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중소기업계에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 김덕재 IT여성기업인협회장을 비롯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벤처개발협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선 주형환 부위원장과 고광희 저출산정책국장이 자리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보고 있다.

김기문 회장은 “중소기업은 만성적인 인력난으로 당장 일할 사람 구하기 힘든 곳이 많은데, 일·가정 양립제도가 강화되면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동료 근로자들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서 “게다가 중소기업들은 경직적인 주 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등 과도한 노동규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육아휴직 등 제도 활용이 중소기업에 부담되지 않도록 지원 강화와 함께 노동규제 제도 시급히 완화돼야 한다. 중소기업인들이 경영에 집중할 수 있어야 일자리도 늘어나고, 일·가정 양립 환경도 조성되는 선순환이 이뤄지는 만큼 위원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대체인력 확보 지원(재용지원금 인상 및 원활한 대체인력 공급)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노동규제 개선 ▲연구개발(R&D) 외국인력 허용 기준 완화 등 현장 애로와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저출생 문제는 정부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 만큼 중소기업계와의 긴밀한 협조 및 상호보완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일·가정 양립 제도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계의 경영상의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제도 도입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에 대해 확실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집행단계서 성과 결정돼”

오영주 중기부 장관, 대책 준비상황 점검 “직원 사전교육, 진행과정 면밀 점검해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5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성과는 집행 단계에서 결정된다. 집행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으면 당초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장관은 이날 대전 유성구에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에서 정부가 이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여동 경제 로드맵 회의’에서 발표한 관련 대책 점검 자리에서 “소진공 본부는 ‘정책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본부와 지역센터는 유관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세부 상담과 유관기관과의 연결 역할을 해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소진공에서 집행하는 정책뿐만 아니라, 유관기관의 정책까지 상담해야 하는 만큼 타부처의 정책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직원 사전교육과 시범실시 과정을 거쳐 정식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 과정을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자리는 지방중기청, 소진공 공단본부 및 지역본부·센터 등의 준비 상황을 들여다보고 기관별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오 장관과 지방중소기업청장, 박성호 소진공 이사장, 지역본부장, 신보중앙회 이사 등 총 40여 명이 참석했다. 지역 센터장들은 영상으로 함께 했다.

참석자들은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인 ▲경영 부담 완화 ▲재기 지원 ▲성장 촉진 등 분야별 추진 상황을 논의했다. 소상공인 정책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 구축 상황도 체크했다. /김승호 기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5일 오후 대전 유성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점검하고 있다. /중기부

앞서 정부가 내놓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는 ▲정책자금 상환연장 등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 ▲배달료·임대료·전기료 등 5대 고정비용 부담완화 ▲소상공인 매출 지원 확대 및 사회 안전망 강화 ▲업종별·분야별 진단을 통한 소상공인 스마트·디지털화 ▲소상공인 → 소기업으로의 성장(Scale-up) 지원 ▲유망 소상공인의 해외 시장 경쟁력 제고 밀착 지원 ▲새출발기금 확대 (30조→40조원+α)와 취업·재창업 연계 지원 ▲채무 일시상환 부담 완화 등을 통한 폐업 희망 소상공인 지원 등의 내용이 두루 포함돼 있다.

여기에는 오 장관이 취임 후 지난 1월부터 ‘우문현답’ 간담회 등 각종 현장 방문에서 건의한 과제들이 반영됐다.

오 장관은 전국상인연합회와의 정책간담회(5일), 소진공 서울서부센터 방문(11일), ‘우문현답’ 개최(12일) 등을 통해 현장 소통과 집행 점검을 이어오고 있다.

한편 소진공은 지난 6월 대전 중구에 있는 본부를 유성구로 이전했다.

이날 자리는 소진공 본부가 대전 내에서 이전한 후 주무부처 장관까지 참석해 진행된 첫 외부행사다. /김승호 기자

“AI 기술로 해결” vs “사회적 합의가 먼저” CJ대한통운, 친환경 물류 등 추진방향 설정

‘사이버 불링’ 범죄 해결방안

인텔, AI 실시간 판정 기술 개발 중
美 액티비전 ‘모독스’로 제재 가능
“AI의 오류 논의 먼저 선행돼고 사회·이해관계자 영향 검토해야”

온라인 게임 채팅 내 폭언, 욕설 등을 일삼는 이른바 사이버 불링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알고 있는 반면, 기술 도입 이전에 사회적 합의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논란도 나온다.

15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게임 채팅에서 수차례 폭언과 욕설을 한 20대가 스톱킹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가해자가 온라인 게임 채팅을 통해 한 달간 피해자에게 조롱 섞인 폭언 메시지를 221차례 보내며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 인터넷 상의 지속적 괴롭힘)’ 범죄를 저지른 것.

해당 사건으로 온라인에서 발생한 행위도 실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 행위로 인식되고 있다는 분

석 나온다. 지금까지 온라인 게임 내에서 벌어지는 사이버 불링 문제는 고질적이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게임 이용자의 56.2%가 게임 내 사이버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그 중 언어 폭력 83.9%, 스톱킹 57.2%, 명예훼손 39.3% 비율을 차지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처벌 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범죄율은 가시적으로 줄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해결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사이버 불링의 해결점으로 AI 기술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미 인텔은 2019년부터 사이버 불링에 대한 해결책으로 AI에 주목했다. 당시 인텔은 게임 개발자 콘퍼런스에서 “영국의 스피릿 AI와 공동으로 폭언 및 비방을 일삼는 게이머를 AI가 실시간으로 판정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미국 게임사 액티비전 이 온라인 게임 내 욕설 및 폭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 기능을 도입했다. 액티비전은 FPS 게임 ‘콜 오브 듀티’에 이용자들의 음성 채팅을 모니터링하고 악성 이용자를 제재할 수 있는 AI ‘톡스모드’를 적용했다. 톡스모드는 문제가 되는 채팅 내용을 추출해 운영자에게 제출하여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미국의 브리검영 대학교와 듀크대학교 연구원들이 사이버 폭력에 맞서 올바른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AI 활용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연구 결과는 사이버 불링을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반면, 기술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도 있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관계자는 “사이버 불링이 아닌데 AI가 사이버불링이라고 잘못 판단했을 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며 “기술을 도입했을 때 이 기술이 사회 및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그 영향도 평가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안재선 수습기자 wotjs4187@

‘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CJ대한통운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데이터 공개 범위를 해외 주요 진출국으로 확대하며 글로벌 ESG 경영을 강화한다.

CJ대한통운은 지난해 ESG 경영성과를 담은 ‘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CJ대한통운은 이번 보고서에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물류 서비스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전달하는 기업’이라는 ESG 경영 목표에 따라 ▲친환경 물류 ▲상생 생태계 조성 ▲신성장동력 확보 등 ESG 3대 추진방향으로 설정했다.

또 핵심사업인 물류업을 통해 환경, 사회적 가치를 창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며 스마트 물류를 선도하는 글로벌 리딩물류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올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그간 국내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하던 데이터 공개 범위를 주요 해외진출국 미국·인도·베트남까지 확대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김승호 기자



CJ대한통운 O-NE 배송차량.

앞으로 해외 현지에서의 ESG 경영 및 관련 지표 관리를 한층 고도화하고, 지속가능경영 평가 범위도 전 해외법인을 대상으로 순차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임팩트 스토리’ 카테고리를 신설해 친환경 노력과 성과를 소개한 것도 새롭게 추가한 내용이다.

이외에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기준에 따라 지속가능한 사업, 기후변화 대응, 폐기물 관리, 안전보건, 인재경영, 노동관행 등 6대 중대이슈를 설정하고 이슈별 접근전략, 재무·사회·환경적 영향, 리스크 관리 체계 중장기 목표도 공개했다. /김승호 기자

농림어업인 고용보험 문턱 낮춘다

4인 이하 근로자·1인 경영주도 가입

근로복지공단, 7월부터 확대 시행
4인 이하 근로자 직접신청 절차 개선
이달부터 3개월간 특별 가입기간

농림어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1인 경영주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근로복지공단은 농림어업인의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7월부터 4인 이하 농림어업 종사 근로자와 1인 경영주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요건을 개선했다고 15일 밝혔다.

고용보험은 4대 사회보험 중 하나로 불가피하게 직장을 잃은 근로자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돕는 보험이지만, 기간 상시근로자 4인 이하(비법인) 농림어업 종사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7월부터는 4인 이하 농림어업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할 경우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고 근로자도 직접 가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됐다.

또 농림어업 경영주의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하고



근로복지공단은 농림어업인의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달부터 4인 이하(비법인) 농림어업 사업장 근로자나 1인 경영주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뉴시스

직원이 없는 1인 농어업 경영주는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업 경영체로 등록된 경영주와 1인 경영주의 가입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혼자 또는 소규모로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대다수 경영주들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9월 30일까지 3개월간 '농림어업 근로자 및 경영주 특별 가입기간'을 운영, 농어업경영체

등록 업체와 농어업인 단체 등을 중심으로 고용보험 제도개선 사항, 가입 절차 등을 안내하고 신규 가입 희망 농어업인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박종길 이사장은 "관계 부처 및 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이번 농림어업인에 대한 고용보험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 빨리 안착돼 많은 농림어업인들이 더 넓고 두텁게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농림축산식품부

올해 인니 축산박람회서 동물용의약품 시장 공략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7월 17~19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2024년 인도네시아 축산박람회'에서 동물용의약품 홍보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동남아는 중남미와 함께 국내 동물용의약품의 주요 수출시장이다. 앞서 지난 3월 태국 국제박람회에서도 한국관을 운영한 바 있다.

정부는 우리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출기업에 해외 판로 개척 및 수출 확대 기회를 제공하고자 매년 해외 박람회에 단체 참가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세계 각국에서 1만 명 이상의 바이어가 참가하는 인도네시아 최대 축산박람회 중 하나다. 박람회 기간 현지 사료, 낙농업 및 수산업 박람회가 동시에 개최된다. 또 각 분야별 학술회의(비즈니스 컨퍼런스)가 개최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정보 교류 및 최신 축산 동향을 살펴볼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이자 인구의 87%가 이슬람교로 믿고 기시장이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향후 축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동물용의약품 수출 또한 동반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중심으로 한국동물약품협회와 함께 전시회를 참관할 예정이다. 동남아의 동물용의약품 관련 최신 정보 동향 파악에 주력하고, 간담회를 통해 수출업체 애로사항 등도 파악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하천 등 후속강우 대비 철저”

이병화 환경차관, 홍수상황 점검
“작은 위험요인 큰 피해로 이어져
장마철 마지막까지 역량 총동원”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이달 상순부터 누적된 호우로 전국 곳곳의 지반이 약해진 상태라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이 차관은 15일 정부세종청사 물재해종합상황실에서 홍수상황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지난주 피해를 입은 하천 제방, 상하수도 시설 등을 조속히 복구하고 취약지역으로 집중 점검 및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연이은 강수로 하천과 댐 수위도 올라가 있고 지반이 많이 약해진 만큼, 작은 위험요인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장마철 마지막까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집중 호우 때의 경험을 토대로 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할 것을 홍수 관련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이날 점검회의에는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 홍수통제소를 비롯해 기상청, 한국수자원공사, 국립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등이 참여해 홍수피해 복구현황 및 후속 강우 대처계획을 논의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7월 7일부터 10일까지 충청권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린 이후, 지난 주말(7월 13



지난 10일 쏟아진 거센 비로 수위가 차오른 충남 논산 양촌면 논산천. /뉴시스

일~) 남부지방에 머물던 장마전선이 중부지방으로 북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7월 7~10일 기간 환경부는 총 96건의 홍수특보를 발령했다. 특히, 올해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으로 확대한 특보지점(지방하천 위주 확대)에서 발령된 횟수는 69건으로 전체의 72%를 차지했다.

이후 강수에도 신속하게 홍수 예측정보를 제공해 차질없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번 집중 호우 시대청담, 보령댐 등 다목적댐에 물을 최대한 저장(총 18.9억㎥)해 하류 하천의 수위 상승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했다. 장마소강기인 14일 전후로는 후속 강수에 대비해 집중 방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홍수조절용량(약 50억㎥, 7.14일 기준)을 추가로 확보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AI가 상담해주고 진술조서 자동작성도”

고용부, 근로감독관 AI 지원 11월 공개

임금체불 등 노동분야 근로감독 신고사건 등 처리 전반에 인공지능(AI)이 지원하는 시스템이 개발된다. AI가 근로자나 사업주에 노동법에 대해 맞춤 상담을 진행하고, 진술조서를 자동작성하는 등 근로감독관 업무를 지원하게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오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인공지능 전문기업 주식회사마음AI와 '근로감독관 인공지능(AI) 지원시스템의 성공적 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근로감독관 AI 지원시스템은 지난 5월 29일 '노동의 미래 포럼'에서 노동법 준수관행을 확립하기 위한 정책 아이디어로 제안됐다. 이후 고용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등이 공공부문 AI 일상화와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 가속화를 위해 추진하는 '초거대 AI 기반 서비스 개발지원 사업' 공모에 참여해 10대 1이

상의 경쟁을 뚫고 최종 선정됐다.

근로감독관 AI 지원시스템은 근로감독관이 신고사건과 근로감독을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이 노동법에 대해 질문하면 24시간 개인화된 답변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노무관리 역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장 사업주에게도 노동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AI를 통한 진술조서 자동작성과 분석, 법령·판례·질의회시·업무매뉴얼 자연어 검색 등 근로감독관을 지원해 신고사건 처리 신속화도 도모할 수 있다.

고용부는 충분한 신뢰성 테스트를 거쳐 올해 11월 근로감독관 AI 시스템을 공개할 계획이다. 근로감독관은 업무망 내에서, 국민은 웹사이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권장준 노동개혁정책관은 “근로감독관 AI 지원시스템을 시작으로 근로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노동약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집배원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찾아준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이달 확대 시행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이달부터 집배원이 주소지로 방문해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집배원 직접방문 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퇴직공제금 수급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적립된 사실 또는 청구 방법을 몰라 청구하지 못한 고령자와 사망한 근로자 유족(배우자)을 대상으로 집배원이 직접 찾아가 지급청구서 작성을 도와주는 서비스다. 이번 방문 서비스 대상자는 3만명 규모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그동안 퇴직공제 가입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내역을 합산해

적립된 공제부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해 지급하는 금액이다.

공제회는 우정사업본부와 협업해 퇴직공제금을 청구하지 않은 고령의 건설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집배원 직접 방문 서비스를 운영했으며, 올해 7월부터는 사망한 건설근로자 배우자까지 범위를 확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집배원 방문 전 안내 영상이 포함된 모바일 전자고지문을 사전에 발송한다.

이재금 고객사업본부장은 “올해는 사망 근로자의 유족까지 범위를 확대해 집배원 서비스를 운영하는 첫 해”라며 “퇴직공제금 수급권자가 쉽고 간편하게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농어촌공사, 韓 농기자재 590만 달러 수출

농기자재 해외 바이어 초청 상담회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11일 서울 강남 오크우드프리미어 코엑스센터에서 열린 '2024 농기자재 해외 구매기업(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에서 590만 달러 상당의 수출 성과를 달성했다고 15일 밝혔다.

수출상담회는 국내 농기자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수출 확대를 목표로 국내기업과 해외 구매기업이 직접 만나 일대일로 진행됐다. 행사에서는 국내기업 30개사와 미국, 중국, 동남아 등 15개국의 19개 해외 구매기업이 한 자리에 모여 176건, 147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이 이뤄졌다. 또 총 590만 달러 규모의 양해각서(MOU) 3건이 체결됐다. 주요 협약 품목은 비료와 농약, 종자 등이다.

공사는 행사에 앞서 국내기업의 영문 소개자료를 제작해 해외기업들로부터



지난 11일 2024 농기자재 해외 구매기업 초청 수출상담회에서 우리나라와 베트남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터 상품에 대한 관심을 유도했다. 또 해외기업과의 일대일 온라인 사전 인터뷰를 통해 원하는 수요 품목을 파악하고, 기업의 관심 상품, 과거 거래 명세, 요구 조건 등을 분석해 국내기업에 제공했다. 이를 통해 국내기업이 해외기업의 특성과 요구를 미리 파악해 효과적인 판매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2024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 밸류업 K-마켓, 100세시대 안전망

2024.07.17(수) 14:00~17:00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KRX) 1층 컨퍼런스홀



이채원
라이프자산운용 이사회 의장
前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대표이사
前 한국투자증권 자산운용본부장



김경록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
前 미래에셋투자자산운용 연구센터 대표
前 미래에셋자산운용 채권 CIO 및
경영관리부문 대표이사



정재훈
KB국민은행 부동산사업부(P) 수석차장
명지대학교 일반대학원 겸임교수



김세환
KB증권 리서치본부 투자컨설팅부 팀장
미국 주식 관련 투자 전문 애널리스트

● 행사개요

행사명: 2024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

주 제: 밸류업 K-마켓, 100세시대 안전망

일 시: 2024년 7월 17일(수) 14:00~17:00 (VIP 티타임 13:30~14:00)

장 소: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KRX) 1층 컨퍼런스홀

주 최: 메트로신문, 메트로경제

후 원: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등 록: 사전등록 무료(현장등록 5만원)

문 의: 100세플러스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 포럼에 참가하는 분께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 프로그램

구 분	시 간	프 로 그 램
참가등록	13:00~14:00	참가접수 및 등록 ※VIP티타임: 13:30~14:00
개막식	14:00~14:20	<축사>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기조강연	14:20~15:00	이채원 라이프자산운용 이사회 의장 : 국내외 경제상황 진단과 금융투자시장 전망
강연	15:00~15:40	김경록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 : 100세시대 자산관리 전략
	15:40~16:20	정재훈 KB국민은행 부동산사업부(P) 수석차장 : 부동산시장 진단과 투자 전망
	16:20~17:00	김세환 KB증권 리서치본부 투자컨설팅부 팀장 : 해외주식 투자전략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부산시, 하반기부터 전기차 구매하면 100만원 추가지원

전국 최초 전기차 '지역 할인제' 참여 제작·수입사 50만원 할인 부산시 50만원 구매 보조금 지원

부산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 최초로 전기 자동차 '지역 할인제'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전기 자동차 지역 할인제는 부산시민이 지역 할인제에 참여하는 전기 자동차 제작·수입사의 전기 자동차를 구매하면, 제작·수입사가 50만원을 할인해주고 시가 50만원의 구매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다.

전기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부산의 대기환경을 개선해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구매 보조금에서 총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 자동차 지역 할인제에 참여하는 제작·수입사는 ▲현대자동차 ▲G



부산시청.

/부산시

S글로벌 ▲일진정공 ▲EVKMC 총 4곳이다.

지난 6월 지역 할인제 참여업체 모집 공고를 통해 이들 업체를 모집했다. 지역 할인제 대상 차량은 해당 제작·수입사의 대리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경기 침체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생계용 자동차를

전기 자동차로 구매하는 택시 운전사,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 할인제 대상 택시용 승용차와 화물차를 구매하면 구매 보조금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기존 지역 할인제로 받는 100만원의 지원 혜택에 50만원의 구매 보조금이 추가로 지원돼 총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역 할인제 신청은 환

경부 저공해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 시스템에서 대상 차량의 구매 보조금을 신청할 때 함께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전기 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사업을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추진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전기 자동차 총 5032대에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며 지원 금액은 승용차 1대당 최대 950만원, 화물차 1대당 최대 1500만원이다. 구매 차량의 권장 소비자 가격별로 구매 보조금이 차등 지급된다.

이병석 시 환경물정책실장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전기 자동차 지역 할인제가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부산이 탄소 중립 선도 도시로 나아가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 시는 앞으로도 전기 자동차 보급 확대에 매진해 맑고 쾌적한 하늘이 있는 부산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경북도 6개 시·군 '농촌 왕진버스' 운영

경북도는 지난 12일부터 올 연말까지 도내 6개 시·군에 '농촌 왕진 버스'를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농촌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과소화, 고령화된 농촌 특성에 맞는 의료·돌봄·복지서비스 확충)을 위한 것으로, 의료서비스 제공 사업이다.

도는 올해 3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촌 왕진 버스 지원사업에 선정돼 6개 시·군 10개소(구미시 2곳, 상주시, 문경시 2곳, 성주군 2곳, 봉화군, 울릉군 2곳)가 선정돼 사업비 2억4200만원을 확보했다. /경북=장영우 기자

울산시 이달 정기분 재산세 1534억 부과

울산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 대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534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7월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 1/2과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것이다.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 1/2과 토지분 부과된다.

다만, 재산세 연세액 20만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이번에 전체 금액이 부과된다.

구·군별 부과 현황을 보면, 남구가 52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울주군 401억원, 북구 258억원, 중구 196억원, 동구 156억원 순을 보였다. /울산=손병호 기자 metrobusan5@

전남도, 인구영향평가 제도 시범도입

지방소멸위기·인구감소 문제 극복 주요 사업 목적 등 인구관점서 분석 인구증가 기여하는 방향으로 개선

전라남도는 올 하반기부터 각종 정책, 사업 등에 인구구조와 도민의 일상적 삶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대안을 제시하는 인구영향평가 제도를 시범 도입해 인구감소 문제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인구영향평가 제도 도입은 지방소멸위기와 인구감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주요 사업 목적과 내용을 인구관점에서 분석한 결과를 인구증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전남도는 정부보다 먼저 인구영향평가 제도의 필요성을 체감해 제도 도입에 나섰다. 성공적 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 2023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문가 의견수렴과 '인구영향평가

시범적용 연구용역' 등 다양한 절차를 거쳤다.

대상 사업은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 중 개별사업 특성을 감안해 선점할 예정이다. 특히 출산을 제고와 전입인구 확대, 생활인구 유입, 청년 비율 제고 등 인구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시범 적용 대상으로 삼을 계획이다.

선정된 대상사업에 대해선 1차적으로 사업 담당자가 일차리와 출산, 양육, 거주환경 등 인구 증대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체크리스트해 자체 진단한다. 이를 기반으로 전문가에 의한 개선사항이나 제안사항 등을 포함한 2차 심층평가(정성평가)가 이뤄진다. 평가 결과를 사업 담당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수용 여부를 결정토록 할 방침이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이철우 경북도지사(오른쪽에서 세번째)는 14일부터 도내 많은 폭우가 예상되는 가운데 안동시 길안천 목계교를 찾아 현장을 점검했다.

경북도, 폭우 피해지역 안전관리상황 점검

이철우 지사, 직접 현장 방문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13일 안동시 길안면 목계리를 찾아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며 지역민과 대화를 나눴다. 이는, 14~15일 지역에 많은 폭우가 예상된 가운데 이뤄졌다.

이 지사는 이번 장마로 도내 많은 지역이 피해를 입은 가운데 연일 피해 시·군을 찾고 있다.

경북도에는 지난 6~10일 평균

194.6mm의 강우로 하천수위와 토양함수량이 증가해 산사태, 저지대 침수 등이 발생했다.

현장을 방문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시·군 부단체장들이 인명피해 우려 지역은 직접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라"고 지시하며 "기존 대피장소인 마을회관, 경로당을 벗어나 지역 주민이 편히 생활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경북=장영우 기자 ycyu57@

MZ세대에 특화된 '정음물빛축제'

내달 1일부터 4일까지 열려

'여름'과 '젊음', '힙합'을 연계한 차별화된 젊음의 여름 축제가 내달 정음천 어린이 축구장 일원에서 열린다.

시 '2024 정음물빛축제(이하 물빛축제)'를 내달 1일부터 4일까지 갖는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를 맞는 올해 물빛 축제는 정음의 대표 명소인 정음천과 지난 6일 개장 이후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전국 최초 복합형 바다분수인 미로분수와 연계한 축제로 기획됐다.

올해 축제에서는 낮에는 다양하고 재미있는 게임과 물놀이 등 물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을 즐기고, 저녁 7시부터는 화려하고 역동적인 인기가수와

그룹의 공연을 함께 할 수 있다.

특히 MZ세대에 특화된 아주 특별한 축제를 내세우고 폭발적이고 역동적인 EDM(Electronic Dance Music)을 기본으로 인기 걸그룹 하이키와 내로라하는 힙합가수인 던탈릭과 김효은, 크라이넛 그리고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은 육종완 밴드가 함께하는 공연을 준비했다. 특별히 본 공연에 앞서 지역의 끼 많은 청소년을 위한 자유무대도 운영한다.

여기에 물빛축제에 걸맞게 물총싸움과 물풍선게임 등 수중 운동회는 물론 어른과 아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워터슬라이드와 워터롤 등 다양한 물놀이기구도 설치한다.

/정음(전남)=양수영 기자

하동군, 벼 병해충 항공·공동방제 본격화

방제시기 앞당겨 선제 대응

하동군이 벼 주요 병해충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드론 또는 무인헬기를 활용한 항공·공동방제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최근 집중 호우와 잦은 강우로 농작물 피해 발생이 예상되고 중국발 비래해충인 흑명나방, 멸강나방, 벼멸구 등이 직접적인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돼 군은 공동방제 규모를 확대했다.

공동방제 횟수를 지난해부터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전체 벼 재배 농가 대상으로 3793ha에 13억 7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선제적방제로 최고 품질의 하동벼를 생산하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유례없는 긴 장마와 폭염으로 중국에서 날아온 흑명나방이 급속히 번식해 피해가 컸던 점을 고려해 올해는 방제 시기를 앞당겨 1차는 7월 10일~20일, 2차는 8월 10일~20일 진행한다.

적극적인 초기 방제는 병해충 발생 밀도를 낮춰 큰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벼농사에 큰 피해를 준 흑명나방이 조기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올해는 흑명나방의 1회기 발생 시점과 발생 정도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예찰 포장과 농가 관찰포장 등 발생 여부를 세밀히 관찰해 적기 방제를 위한 현장 지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하동(경남)=이도식 기자

부산시 솔트룩스 韓영화 르네상스 펀드

부산시는 15일 시청 회의실에서 솔트룩스벤처스, 부산영상위원회와 '솔트룩스 한국영화 르네상스 펀드' 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영화·영상 펀드 결성과 관련 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솔트룩스 한국영화 르네상스 펀드'는 233억원 규모로 결성될 예정이며 시는 부산 지역 영화·영상 산업의 육성과 지역 콘텐츠의 글로벌 진출을 돕기 위해 출자자로 참여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안동시 수출 역량강화 참여기업 모집

안동시는 15일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과 내수 수출기업화 전환 촉진을 위해 '수출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안동시 소재 제조 중소기업 중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거나 건축물대장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기업이다.

신청일 현재 가동 중이어야 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 신청 당시까지 1만 불 이상 수출, 해외박람회 참여 실적기업이다.

지원금 총액 500만 원을 지원하는 수출직불금 및 기업별 최대 400만 원을 지원하는 해외박람회 개별 참가 지원이다.

/안동(경북)=장영우 기자

“칼로리·도수 낮춰 청량하게... ‘라이트 맥주’ 계절 왔다”

하이트진로 테라 라이트

100ml당 25kcal 일반의 절반수준

오비맥주 ‘미켈롬 울트라’ 론칭
‘제로슈거’ 전국 주요 골프장 판매

롯데칠성 크러시 마케팅 확대
캐리비안 베이서 프로모션 전개

헬시 플레저 열풍과 맥주 성수기인 여름이 맞물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라이트 맥주’ 경쟁이 치열하다. 주류업계는 웰니스를 지향하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반영해 당 함량과 알코올 도수를 낮춘 신제품을 출시하며 물량 공세 펼치기에 나섰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이달부터 신제품 ‘테라 라이트’를 전국 마트와 식당 등에 공급하기 시작했다.

‘테라 라이트’는 알코올 도수 4.0%, 100ml 기준 25kcal다. 일반 맥주 열량의 절반 가량이다. 당류나 감미료는 사용하지 않았으며, 특수 제조 공법으로 청량감을 높였다. 호추산 100% 청정 맥아를 기본으로 사용했으며, 특히 라이트 맥주가 가지기 어려운 맥주다운 풍미를 구현하기 위해 일반 맥주보다 4배 더 긴 시간을 들여 추출한 맥즙을 사용했다.

하이트진로는 첫 출고와 동시에 런칭 TV 광고도 공개했다. 브랜드 모델로 배우 이동욱을 발탁해 테라 라이트의 콘



테라 라이트 런칭 TV광고

/하이트진로

셉트를 경쾌한 연기로 위트 있게 표현했다.

향후 인플루언서들과 함께 SNS 콘텐츠를 통해 제품을 알리고, 테라 인기 굿즈를 라이트 버전으로 출시하는 등 소비자 접점에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25일부터는 전북 전주에서 열리는 ‘전주 가맥축제’ 후원사로도 참여한다. 하이트진로 전주 공장에서 당일 생산한 맥주를 공급받아 행사에 참여한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오비맥주는 지난 5월 미국 라이트 맥주 ‘미켈롬 울트라’를 국내에 론칭했다. 최고급 보리 맥아와 쌀, 홉 등 천연 원료를 사용해 가벼운 바다감과 상쾌한 맛을 자랑한다. 제로슈거 제품이며,

330ml 기준 89kcal에 알코올 도수는 4.2%다. 해당 제품은 전국 주요 골프장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골프 애호가를 중심으로 인지도를 끌어올린 뒤 다른 스포츠 마케팅으로 고객 접점을 넓힌다는 구상이다.

신제품인 ‘미켈롬 울트라’ 이외에 오비맥주는 ‘카스 라이트’와 비알코올 맥주 ‘카스 0.0’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카스 0.0’은 비알코올 음료 최초로 올림픽 공식 맥주로 선정됐다. ‘카스 0.0’은 알코올 도수 0.05% 미만인 성인용 음료로, 기존 맥주와 동일한 제조 과정으로 생산한 뒤 알코올만 추출해 만든 제품이다.

주류업계가 라이트 맥주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과거 잦은 음주와 과음을 즐



크러시 BBQ & BEER 페스티벌 프로모션 /롯데칠성

기는 문화에서 MZ세대를 중심으로 가볍게 음주를 즐기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편의점 GS25의 올해 1~4월 저칼로리 맥주와 무알코올 맥주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34.1%, 29.9% 등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편의점 CU도 같은 기간 저칼로리 맥주는 24.5%, 무알코올 맥주는 16.7% 매출이 늘어났다.

여기에, 최근 개정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non알코올 음료 시장에 화력을 더했다. 개정안 시행 이전까지는 종합주류 도매업자가 알코올 도수 1% 이상의 주류만 음식점에 유통할 수 있었지만, 개정 이후 주류 제조사가 제조·판매하는 non알코올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

점에 공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이트진로와 오비맥주가 라이트 맥주에 열을 올리고 있는 반면, 롯데칠성 음료는 최근 ‘클라우드 칼로리 라이트’ 단종을 결정하고 생산을 중단했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재고가 소진되면 ‘클라우드 칼로리 라이트’는 공식 단종된다. 클라우드 라인업에서는 ‘클라우드 오리지널’과 비알코올 음료 ‘클라우드 클리어 제로’와 ‘클라우드 클리어 0.5’만 남게 된다.

대신 ‘크러시’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크러시’는 지난해 11월 출시 이후 45% 이상 매출 신장세를 보이며 주류 부문 실적을 견인하고 있다.

롯데칠성음료는 상반기 맥주 라인업 재정비에 나서면서 일찌감치 ‘크러시’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을 펼쳐왔다. K리그 흥행 구단인 FC서울과 스폰서십을 체결했으며, 여름 휴가지로 각광 받고 있는 에버랜드 워터파크 캐리비안 베이에서 ‘BBQ & BEER 페스티벌’ 크러시 프로모션을 오는 12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진행한다.

업계 관계자는 “저칼로리·non알코올 등 소비자들의 니즈가 다양해지면서 주류업계가 이를 반영한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며 “본격 휴가철을 앞두고 온·오프라인 맥주 마케팅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롯데칠성, 더울수록 더 큰 혜택 ‘더더익션’

‘칠성사이다 청량바이브 이벤트’
특정기온 도달시 단계별 게임참여
추첨통해 에어컨·냉장고 등 제공



청량바이브 이벤트 포스터 /롯데칠성음료

롯데칠성음료는 무더운 여름 ‘더울수록 더 크게 터지는 청량바이브’라는 콘셉트로 ‘칠성사이다 청량바이브 이벤트’를 15일부터 8월 11일까지 진행한다 고 밝혔다.

먼저, 해당 기간 중 매일 낮(09시~21시)과 밤(21시~09시)으로 나눠 특정 기온(24도 이상, 27도 이상, 30도 이상) 도달시 단계별로 소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칠성사이다 터치게임 ‘더더익션 이벤트’를 준비했다. 이벤트에 참여한 소비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스탠디어드

벤처 쿨러, 냉감 바디필로우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신원선 기자

가장 무더운 한낮 시간대(14시~17시)에 응모를 통해 즉석에서 칠성사이다 할인권 및 무료 교환권을 제공하는 ‘타임어택 이벤트’, 폭염주의보를 알리는 긴급재난문자 수신 시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벽걸이 에어컨, 미니 냉장고 등을 제공하는 ‘청량주의보 이벤트’도 함께 마련해 더위를 조금이나마 식힐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이벤트는 칠성사이다 제품 걸면 QR 코드 또는 롯데칠성음료 공식 SNS 및 칠성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참여 가능하며, 응모하고자 하는 고객들은 이벤트 페이지에서 알림 문자 신청으로 보다 쉽게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신원선 기자

‘켈리’ 블루리본 서베이 맥주 파트너 선정

하이트진로 ‘더블 임팩트 맛집 캠페인’

더블 임팩트 라거 ‘켈리’가 대한민국 대표 맛집 가이드 ‘블루리본 서베이’의 맥주 파트너로 선정됐다.

하이트진로는 블루리본 서베이와 협업해 ‘더블 임팩트 맛집 캠페인’을 진행한다 고 15일 밝혔다. 블루리본 서베이가 맥주 브랜드와 파트너십 관계를 맺은 것은 켈리가 최초다.

더블 임팩트 맛집 캠페인은 켈리와 가장 잘 어울리는 전국의 맛집을 발굴하고 소비자에게 소개하기 위해 기획됐다. 하이트진로 임직원이 추천하고 블루리본 서베이가 객관적인 데이터 수집

을 통해 3가지 선정 기준 ▲첫 맛은 부드럽고 끝 맛은 강렬한 켈리와 잘 어울리는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곳 ▲음식 맛이 뛰어나고 서비스 후기가 긍정적인 곳 ▲편안한 분위기로 즐거운 경험을 남길 수 있는 곳에 부합한 전국 1000개 맛집을 선정했다.

하이트진로는 더블 임팩트 맛집으로 선정된 업소에 켈리&블루리본 인증 스티커와 인증패를 제공해 가게 홍보를 지원한다. 1000개 맛집 중 추첨을 통해 온라인 콘텐츠를 별도 제작해 켈리 공식 인스타그램 등 SNS에도 홍보를 진행한다.

/신원선 기자

“단체급식장서 충남맛집 메뉴 맛보세요”

CJ프레시웨이 ‘맛남상생’ 프로젝트
충남 농특산물 활용... 11월까지 실시

생 프로젝트다.

CJ프레시웨이는 ‘맛남상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7월 초복을 맞아 지난 12일, 서울 마포구 본사 구내식당에서 충남 부여군 맛집 ‘메밀꽃필무렵’의 대표메뉴 ‘수박막국수’를 구현해 특식으로 제공했다. 수박막국수는 고당도 고품질로 유명한 ‘충남 부여 수박’을 식재료로 사용해 달콤하면서도 개운한 맛을 살렸으며, 육수에 살얼음을 띄워 시원함을 더했다.

또 구내식당 곳곳에 충남 농특산물과



‘맛남상생’ 프로젝트로 마련된 충남 부여 농특산물 활용한 ‘수박막국수’ /CJ프레시웨이

맛집의 우수성을 알리는 홍보물을 전시하고, 식사를 마친 고객을 대상으로 수박 빻기 이벤트를 실시해 ‘충남 부여 수박’ 한 통을 경품으로 증정하기도 했다.

/신원선 기자

대상 증가 ‘김치 블라스트 부산 2024’ 운영

19일부터 28일까지 열흘간

종합식품기업 대상의 김치 브랜드 ‘종가’가 오는 19일부터 28일까지 열흘간 호텔아쿠아펠리스 부산에서 ‘김치 블라스트 부산 2024’를 운영한다.

‘김치 블라스트 부산 2024’는 ‘김치의 무한한 상상, 즐거움이 되다’를 테마로 새로운 김치를 경험하고자 하는 모든 세대에게 이전에 없던 종가만의 차별화된 김치 콘텐츠를 선보인다. 압도적인 브랜드 경험을 통해 ‘김치는 곧 종가’라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음식으로 김치의 위상

을 높인다는 포부다.

특히 이번 팝업은 여름 대표 휴가지인 부산 광안리에서 열리는 만큼 비강스족을 비롯해 보다 많은 국내외 방문객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8일 공개한 티저 영상과 15일 공개한 종가 2024 브랜드 캠페인 영상도 이번 팝업에 대한 기대감을 모은다. 종가의 브랜드 앰버서더 호시가 함께한 브랜드 캠페인 영상은 ‘We are Kimchi Lovers’를 테마로 ‘HOXY? KI MCHI!(혹시? 김치!)’과 ‘우더와 올헤새롭게 선보이는 김치 스프레드’를 활용해 다양한 김치 메뉴를 만끽하는 호시의 즐거운 모습을 담았다.

/신원선 기자

하이엔드 브랜드, 디바이스 들고... K뷰티, 中시장 '정조준'

K-뷰티, 中 실적 반등

국내 대표 화장품 브랜드들이 중국 시장에서 현지 업체들과 경쟁에 속도를 내며 실적 개선 등 재반격을 시도하고 있는 분위기다.

15일 뷰티업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13일 중국 상하이에서 스킨케어 브랜드 '에이피 뷰티'의 브랜드 대표 제품인 '듀얼 리페어 리프트 크림' 출시를 기념해 글로벌 미디어 행사를 열었다.

아모레퍼시픽은 앞서 지난 1월 기존 브랜드 '아모레퍼시픽'을 전면 재단장해 고효능 하이엔드 스킨케어 브랜드 '에이피 뷰티'를 새롭게 내놨다. 이후 이번 행사를 통해 아모레퍼시픽은 중국에서 에이피 뷰티를 처음 선보이게 됐다.

이 자리에서 아모레퍼시픽은 브랜드 철학을 비롯해 '듀얼 리페어 리프트 크림'의 성분과 효능, 에이피 뷰티의 기술력 등을 소개했다. 에이피 뷰티는 타고난 피부의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리프팅 등 특수 관리 기술을 구현한 '듀얼 리페어 리프트 크림'의 안티에이징 효과는 행사 현장 방문객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는 것이 아모레퍼시픽 측의 설명이다.

또 이날 행사에는 한국과 중국 양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배우 정수정(크리스탈), 중국 배우 쟈리(쥬리) 등 유명



지난 13일 중국 상하이 랜드마크 지우광 백화점에서 열린 '에이피 뷰티' 글로벌 미디어 행사에서 배우 정수정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 에이피 뷰티 론칭 하이엔드 럭셔리 고객 공략 방침

에이피알 中 '618쇼핑' 축제서 3회 라방, 누적매출 36억 기록

미샤 'M퍼펙트 커버 비비크림' 제품군 판매량 전년비 21% ↑

인사와 뷰티 인플루언서, 글로벌 미디어 관계자들이 참석해 에이피 뷰티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아모레퍼시픽은 70년 이상 축적해 온 피부 연구 자산 중 최고 수준의 성분과 기술만을 적용한 에이피 뷰티를 통해 중국 하이엔드 럭셔리 고객들을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최근 중국 화장품 시장에서 검증된 성분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고효능 스킨케어 제품이 지속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에이피 뷰티의 중국 진출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뷰티테크 기업 에이피알은 뷰티 디바이스를 앞세워 중국 화장품 시장 선전에 나섰다.

에이피알은 최근 중국 '618 쇼핑' 축제에서 총 3회에 걸쳐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진행해 누적 매출액 36억원을 기록했다. 왕홍 리우웬웨의 '부스터 프로' 단독 생방송을 통해 1회 방송만으로 23억원의 판매고를 올리는 등 에이피알은 왕홍과 협력해 브랜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왕홍이란 중국인플루언서를 뜻하는

데 리우웬웨의 경우, 중국 틱톡 더우인에서 보유하고 있는 팔로워 수는 1937만 명에 이른다.

이번 이벤트를 계기로 에이피알은 중국 전체 화장품 시장에 비하면 규모가 작았던 뷰티 디바이스 시장이 중국 소비자 인식 변화와 함께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 같은 움직임에 발맞춰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뷰티 기업 에이블씨엔씨의 화장품 브랜드 '미샤'도 중국에서 브랜드 인지도와 제품 경쟁력을 입증했다.

에이블씨엔씨는 미샤가 중국 '618 쇼핑' 축제기간 동안 브랜드 전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1% 늘어났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미샤 인기 제품인 'M퍼펙트 커버 비비크림' 제품군의 판매량은 전년 대비 21% 증가했다. 에이블씨엔씨에 따르면, 이 제품은 중국에서 '홍(紅)비비'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유명세를 타고 있다. 그 결과, '618 쇼핑' 행사 후에도 해당 제품 구매가 이어져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티몰의 재구매 품목 순위에서 2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에이블씨엔씨는 중국 내 소비 심리 위축, 한한령, 중국 로컬 뷰티 브랜드의 약진 등으로 K뷰티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거둔 유의미한 성과라는 분석을 내놨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롯데백화점 스포츠 매장서 고객이 상품을 고르고 있다. /롯데백화점

롯데백화점

파리 올림픽시즌 맞아 대대적 스포츠 마케팅

롯데그룹의 롯데백화점이 올해 파리 올림픽 시즌을 맞이하여 고객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롯데백화점은 이달 세계적인 스포츠 축제를 앞두고 대대적인 스포츠 마케팅으로 고객몰이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우선 인기 스포츠 브랜드 의류와 야외활동에 필수품인 선글라스, 선케어 제품 등 총 60여 개 품목을 20~60% 할인 가격으로 선보인다.

특히 '나이키', '아디다스', '노스페이스화이트라벨' 브랜드의 런닝화, 티셔츠, 모자 등 일부 품목에 더해 몽클레어, 톱포드, 듀폰 등의 해외 럭셔리 브랜드 선글라스를 최대 반값에 판매한다. 아울러 람프, 헤라, 에스티로더 등의 화장품 자외선 차단 제품도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

제품 할인에 더해 특별 행사도 진행한다. 이달 18일까지 '더 스포츠 2024' 행사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얼리버드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안재선 수습기자 wotjs4187@

LG생활건강, 피부톤에 영향주는 '원인 유전자' 규명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 게재 11개 유전자 영역 세계최초로 발견

LG생활건강이 피부 유전자 연구에 매진해 연구성과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있다. 15일 LG생활건강에 따르면, 지난 6월 국제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 온라인판에 LG생활건강 기술연구원이 피부톤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원인 유전자를 규명한 내용이 게재됐다.

논문 제목은 '유전체 분석을 통한 피부색 유전자 및 다유전자적 적응 규명'으로, 기술연구원은 피부톤에 영향을 주는 23개 유전자 영역을 밝혀냈고 이 중 11개는 세계 최초로 발견했다.

이번 연구는 LG생활건강이 지난 6년 동안 구축해 온 동아시아인 5만 7000여 명의 피부 유전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행됐다. 기술연구원은 다양한 분석 기술을 활용해 멜라닌 생성, 비타민D 합성, 피부 질환 등과 연관된

유전자들을 탐색했다.

특히 기술연구원이 새롭게 발굴한 'GAB2' 유전자는 기미 등 색소 침착의 원인이 되는 멜라닌 전구체 '타이로신'의 인산화를 촉진하는 것과 관련 있으며, 'SLC45A3' 유전자는 세포의 에너지 생산 및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술연구원은 연구 결과를 영국 바이오뱅크의 글로벌 바이오 데이터와 비교 분석해 다양한 인종의 피부톤을

해석했다.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중남미 등 26개 지역 사람의 '타고난 피부톤'을 예측할 수 있었고, 아시아인에서 더 정확한 예측이 가능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이러한 피부 유전체 기반 연구를 통해 LG생활건강은 고효능 제품 개발에 역량을 쏟고 있다.

실제로 LG생활건강은 피부톤, 탄력 등으로 피부 노화 특성을 세분화하고 복합 개선 소재 '프로-라디언스'를 개발해 제품에 적용했다. /이청하 기자

미장센 헬로버블·크림 신규색상 출시

'셀프 염모제' 제품군 강화

아모레퍼시픽이 미장센 '셀프 염모제' 제품군을 강화했다. 아모레퍼시픽은 미장센 '헬로버블'과 '헬로크림(사진)'의 새로운 색상을 선보인다고 15일 밝혔다.

'헬로버블'은 톤다운 계열부터 미디어업, 비비드, 라이트 계열까지 총 19가지 색상이다. 특히 '선셋오렌지'는 최근 유행하는 케이팝 아이돌의 오렌지색 염색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 아모레퍼시픽 측의 설명이다. 또 헬로버블은 기존 제품보다 더 쫄쫄하고 조밀해진 거품도 특징이다. 아모레퍼시픽은 이 거품이 염색하는 내내 모발에 밀착



해 염색 지속력을 높인다고 설명한다. '헬로크림'은 워터와 쿨톤 등 내 피부 톤에 어울리는 색을 선택하는 맞춤형 염모제다. 신규 색상으로 '웬라이트 브라운'이 추가됐다. /이청하 기자

광동제약, 희귀의약품 추가도입 나서

이탈리아 키에시와 판매·유통 계약

광동제약이 희귀질환 사업분야를 확장한다.

광동제약은 이탈리아 희귀의약품 전문 기업 키에시의 희귀의약품을 추가 도입하고 국내 독점 판매 및 유통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광동제약이 도입한 품목은 말단비대증 치료제 '마이갑사', 동형접합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 치료제 '적스타피드', 수포성 표피박리증 치료제 '필수베즈', 지방이영양증 치료제 '마이알렙트' 등 4종의 희귀질환 신약이다.

광동제약에 따르면, 말단비대증은

뇌하수체에 종양이 생겨 성장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희귀질환이다. 주사제로 평생 질환을 관리해야 하는 기존 치료제 시장에서 경구용 치료제인 '마이갑사'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의미 있는 선택지를 제공한다는 것이 광동제약 측의 설명이다.

'적스타피드'는 20세 이전 심장마비와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키는 동형접합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에 효능효과를 갖췄다. 동형접합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의 경우, 기존 스타틴 제제로는 치료가 어려워 광동제약은 적스타피드가 적합한 대안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청하 기자

점안액 '아이미루'

엠버서더에 배우 주현영

유한양행과 라이온코리아가 'MZ세대' 배우 주현영과 함께 점안액 브랜드 '아이미루' 마케팅 활동을 펼친다.

양사는 점안액 브랜드 '아이미루' 엠버서더로 배우 주현영을 발탁했다고 15일 밝혔다. 양사에 따르면, 배우 주현영이 등장하는 이번 신규 광고 주제는 '피로를 유발하는 귀여운 방해꾼'으로, ▲직장인편 ▲소개팅편 ▲도서관편 등 총 3편으로 구성됐다. 각각 눈 침침함, 콘택트렌즈, 충혈 등으로 불편함을 겪는 상황에서 배우 주현영이 '아이미루'를 활용해 눈의 피로감을 물리치는 내용이다.

해당 제품인 '아이미루 40EX 골드'와 '아이미루 40EX 골드콘택트'는 국내 최초 비타민A가 함유된 기능성 점안액이다.

특히 '아이미루 40EX 골드콘택트'는 하드렌즈는 물론 소프트렌즈(컬러렌즈 제외) 착용 중에도 사용 가능한 건강을 챙기고 싶은 현대인들에게 유용하다는 것이 유한양행 측의 설명이다.

라이온코리아가 수입 및 유통하고 유한양행이 위탁 판매하는 '아이미루' 제품은 의사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다. /이청하 기자



색다른 감각의 이머시브 뮤지컬
세계 최초 그랜드 오픈

뮤지컬 바다

100

총 짜리 짝

©Toshio IWAI/ KAISEI-SHA

24.07.06(토) ~ 08.15(목)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새천년홀

Original Toshio Iwai

주최, 제작 Contents Creative Group Artcube 마케팅 에이전시 컴퍼니 예매 인터파크 티켓 문의 02-766-9001



‘제네시스 스코티시 오픈’ 마무리… 매킨타이어 우승
제네시스는 15일 스코틀랜드에서 나흘간 진행된 ‘2024 제네시스 스코티시 오픈’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로버트 매킨타이어(세계랭킹 44위)가 최종합계 18언더파 262타로 우승을 차지했다. 현대차 장재훈 사장(왼쪽부터)과 우승자 로버트 매킨타이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네시스



중기중앙회, 공동사업지원자금 출연금 1억 전달
중기중앙회가 1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공동사업지원자금 출연금 전달식을 가졌다. 출연금 1억원은 서울경인레미콘공업협동조합, 서울동북부건재유동사업협동조합 등 31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정성을 모아 마련했다. (왼쪽 2번째부터)김기문 기중앙회장, 박종석 서울중소기업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캠코, ‘우수행정·정책사례 선발대회’ 최우수상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 12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2024년도 우수 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에서 최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원호준 캠코 기업지원본부 총괄이사(오른쪽 네번째)와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캠코



CJ제일제당, 희귀병 환자 ‘햇반 저단백밥’ 후원
CJ제일제당은 희귀병인 페닐케톤뇨증(PKU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16년째 ‘햇반 저단백밥’과 기부금을 전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제22회 PKU가족캠프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CJ제일제당



삼표시멘트, 덕산해수욕장 해양정화 활동 전개
삼표그룹 계열사인 삼표시멘트는 삼척경찰서 직장 어린이집 원생들과 함께 강원도 덕산해수욕장에서 해양정화 활동을 펼쳤다고 15일 밝혔다. 삼표시멘트 임직원들은 삼척경찰서 직장 어린이집 아동, 부모 등 20여 명 함께 해변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고, 바다에서 유입된 페플라스틱과 스티로폼 등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했다.
/삼표그룹

주한 미 대사,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방문

정기선, 골드버그 대사 동행… 함정사업 협력 논의

(HD현대 부회장)

이지스함 등 건조현장 점검 이상군 대표 “美 협력 강화”

주한 미국 대사 일행이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를 찾아 함정사업 분야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HD현대중공업은 15일 필립 S.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와 놀란 바크하우스 주부산 미국 영사 등이 울산 HD현대중공업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HD현대 정기선 부회장과 HD현대중공업 이상군 사장이 동행, HD현대중공업의 주요 사업 현황을 직접 소개했다.

이번 방문은 골드버그 대사가 글로벌 1위 조선사이자 함정 분야 국내 대표 기업인 HD현대중공업을 직접 둘러보고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며 성사됐다. 골드버그 대사 일행은 HD현대중공업의 상선 건조 현장을 시찰한 후 특수선 야드로 이동, 차세대 이지스



마이클 말린 미 합동군사교문(왼쪽부터), 놀란 바크하우스 주한 미국 영사,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 정기선 HD현대 부회장이 15일 HD현대중공업 특수선 야드와 건조 중인 함정을 둘러본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구축함, 최신에 초계함 등 건조 중인 함정들과 도크, 창정비시설 등을 살펴봤다.

특히 미국이 자국 함정의 유지·보수·정비(MRO) 물량의 일부를 해외에서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최근 미국 고위급 인사들이 잇따라 HD현대중공업을 방문하면서 미 해군과의 협업 가능성을 높여주

고 있다. 앞서 올해 2월에는 카를로스 델 토로 미국 해군성 장관이 HD현대중공업을 찾아 함정 건조 역량을 직접 확인한 바 있다. 델 토로 장관은 HD현대중공업 등 국내 조선소를 방문한 후 “선박 건조 공정의 디지털화 수준과 실시간 모니터링에 깜짝 놀랐다”며 “우리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이지스 구축함을 포

함한 고품질 선박을 건조한다”고 밝힌 바 있다.

HD현대중공업 이상군 대표이사는 “그 어느 때보다 전 세계적으로 안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랜 우방이자 세계 최강국인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K-방산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삼양그룹, 창립 100주년 기념 특별전시회 마련

12월말까지 운영… 무료 관람 100년 여정 등 7개 구역 구성

삼양그룹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전북 고창군에 위치한 상하농원에서 창립 100주년 기념 특별전시회 ‘안녕 100’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방문객들에게 삼양그룹의 창업 및 성장의 역사를 보여주고, 다양한 전시와 체험을 통해 현재 삼양그룹의 주요 사업과 제품, 기술력을 보다 쉽게 알려주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는 ▲WELCOME TO SAMYANG(삼양에 온 것을 환영해) ▲JOURNEY OF SAMYANG(삼양 100년의 여정) ▲STROLL OF SAMYANG(삼양 산책하기) ▲STORY OF FOUNDER(창업주 이야기) ▲MOVE WITH SAMYANG(숫자로 보는 삼양) 등 총 7개의 구역으로 구성됐다.

삼양 100년의 여정과 창업주 이야기에서는 삼양의 지난 100년 역사와 창업주인 고(故) 수당 김연수 선생의



‘안녕 100’ 특별전시회 /삼양그룹

경영철학과 나눔정신을 소개한다. 삼양 산책하기와 숫자로 보는 삼양에서는 화학, 식품, 의약바이오, 패키징 등 삼양이 현재 진행하는 주요 사업과 성과를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꿈꾸는 삼양은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공간으로 수당 선생이 본인의 경영철학을 빚대어 직접 그린 은행나무를 모티브로 만들어졌다. 주중에는 방문객들이 은행잎 모양의 점착식 메모지에 자신의 꿈과 미래를 직접 작성하고 붙여서 꾸미

는 활동이 진행된다. 주말에는 은행잎 모양의 재활용 플라스틱 키링을 제작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100주년 축하하기는 참가자들이 100주년 페이퍼 안경을 직접 꾸미고 만들어 삼양그룹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공간으로 마련됐다.

이번 특별전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진행된다.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주중(월~목)은 자유관람, 주말(금~일)에는 전문 큐레이터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양성운 기자

한화갤러리아 환아가정 휴식 지원

한화갤러리아가 중증 입원 아동을 위한 사회지원 활동에 나섰다.

갤러리아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서울대학교병원 넥슨어린이통합케어센터와 함께 ‘쉬어가도 괜찮아’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갤러리아에 따르면, 넥슨어린이통합케어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쉬어가도 괜찮아’ 프로그램은 중증 환자 보호자의 휴식을 돕는 한화의 사회공헌 프로젝트다. 지난달 말부터 현재까지 30여 가정이 프로그램 신청서를 제출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서울대학교병원 넥슨어린이통합케어센터 어린이 입원지를 대상으로 하며, 입원 기간 동안 보호자들은 전국 한화호텔 및 리조트에서 여행과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또한 사우나, 수영장, 아쿠아리움 등 부대시설 이용 혜택과 조식 서비스도 제공된다.
/안재선 수습기자 wotjs4187@

인사

◆인사혁신처 ◇국장급 승진 ▲공무원 노사협력관 이경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연구개발센터장 신현미

부음

▲이상수씨 별세, 이연주(대구시교육청 총무과)씨 부친상 = 15일, 계명대학교 경주동산병원 장례식장 VIP실, 발인 17일 오전 6시30분.

▲한용석씨 별세, 한용수(한국프로축구연맹 부총재)씨 부친상 = 15일, 경기도 안성 도민장례식장 VIP 2호실, 발인 17일 오전 10시30분.

▲홍순형씨 별세, 홍성완(클루커스 대표)·성준·은실·영득씨 부친상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 발인 17일 오전 7시.

JW중외제약, ‘2024 아트어워즈’ 개최

‘너와 나, 우리의 세상은’ 주제 내달 30일까지 작품 접수

JW중외제약이 공익재단인 JW이종호재단에서 ‘2024 JW아트어워즈’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JW중외제약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너와 나, 우리의 세상은’을 주제로 열린다. 이 주제는 장애 작가와 세상의 연결 및 공감을 강조하고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

을 존중하고 포용하자는 의미를 갖는다.

‘2024 JW아트어워즈’는 공모전 주제에 맞게 한국화, 서양화 등 순수미술 분야에서 올해 창작한 작품을 대상으로 한다. 참가 자격은 만 16세 이상의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규정에 따른 장애인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작가는 오는 8월 30일까지 JW이종호재단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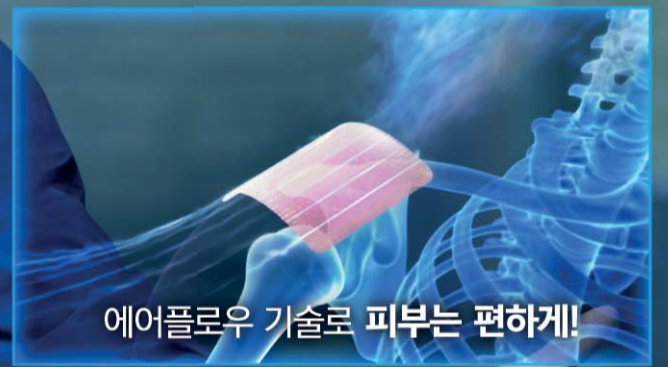
를 통해 출품신청서와 작품 이미지를 접수하면 된다. 출품료는 별도로 없으며 1차 통과자를 대상으로 본 작품을 선정해 2차 심사를 진행한다.

최종 수상자는 대상 1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2명, 장려상 2명, 입선 20명 등으로 오는 10월 중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총상금 규모는 국내 장애인 미술 공모전 중 가장 큰 수준이다. 대상 500만원, 최우수상 각 300만원, 우수상 각 200만원, 장려상 각 100만원, 입선 각 30만원 등이다.
/이청하 수습기자 mlee236@

JEIL 제일헬스사이언스

통증엔 케펜텍으로 Tech 하세요!



케펜텍 Cool

케펜텍 HOT

케펜텍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품 설명서 참조 및 본사 마케팅부(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343 제일헬스사이언스(주) Tel. 수신자부담 080-549-0002)로 문의 바랍니다.

광고심의필 : 2021-1584-004200

평생교육 정책이야기



임 경 수 교수의 라이프롱 디자인

평생교육이야 태초에 사람들이 생겨나면서부터 시작되었을 것이다.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해 터득한 기술과 지식을 가르치고, 또 배웠을 것이다. 부모에게서 자식으로, 또 후대에 걸쳐 가르치며 인격을 길렀으니 평생교육이야말로 인간의 모든 여정이라 하겠다.

평생교육은 오래되어 묵은 것이지만 그것을 정책으로 만들기 시작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 프랑스혁명이 발단이니 까그 해인 1789년을 기억해두어도 괜찮겠다. 모든 연령에 걸쳐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콩드세르의 교육개혁법안이 서막을 열었다.

1929년엔 드디어 익슬리(Yeaxlee)의 라이프롱 에듀케이션(Lifelong Education, 평생교육)이 출간되면서 평생교육의 이정표가 세워졌다. 생을 위한(for life), 생을 통한(through life), 전 생애에 걸친(throughout life) 교육이라는 3가지 표제가 여기서 각인되었다.

이를 풀어보면 평생교육정책은 ①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며 ②가정·직장·사회의 실생활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이며 ③나이나 성별, 사회적 지위에 상관 없이 일생 동안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발화한 평생교육은 유네스코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쌍벽을 이루며 정책 생산의 장이 된다. 먼저 유네스코는 1965년 랑그랑 보고서를 발표하여 평생교육의 국제적 통용을 이끌더니 1972년 포르 보고서에 이어 1996년 들로르 보고서를 공표하면서 평생교육정책을 선도하였다.

전 세계 대표급의 교육정책 수장(우리나라의 교육부 장관도 참여)들이 공동집필자로, 그 시기 유네스코 의장이었던 포르와 들로르가 각각 대표 집필자로 참여했다. 포르 보고서가 '존재를 배우기(Learning to be)'라면, 들로르 보고서는 '학습은 우리 안의 보물(Learning: The Treasure Within)'이라는 타이틀이다.

마침 1996년 1월 16일과 17일엔 OECD가 회원국의 장관급 교육위원회 회의를 열어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Lifelong Learning For All)' 보고서를 세상에 내놓은 후였으니 유네스코의 들로르 보고서는 OECD에 한 발 뒤쳐진 셈이다.

유네스코의 정책노선은 평생교육이 단

순히 지식 전달을 넘어서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조화를 이루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 이에 비해 OECD는 평생학습을 통해 기술과 역량을 개발하여 경제적 경쟁력을 강화할 것을 꾀했고, 개인과 사회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걸 정책노선을 삼았다.

두 가지 정책노선은 고스란히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쳐 한국의 평생교육정책을 탄생시키는, 큰 역할을 했다. 1999년 우리나라는 사회교육법을 평생교육법으로 전부 개정하고, 2000년 밀레니엄시대에 들어서 곧바로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는 이념의 평생교육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그 동안 평생교육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 7대 영역에 이르는 조직적인 교육활동이라는 정의도 확립하였다.

모두 다섯차례에 걸쳐 5개년의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이 추진되었고, 그 사이 평생교육정책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와 평생교육바우처에서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와 노인평생교육시설까지 확대되었다.

/건국대학교 글로벌캠퍼스 교수·성인학습지원센터장

STO 시장, 신속한 법제화 필요



기지 수집 원 관 희 (자본시장부)

토권증권발행(STO) 시장 활성화가 수요자들의 기대와 달리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에 발목이 잡히면서 지지부진한 양상이다. 주요 글로벌시장에서는 STO와 관련된 제도적 장치가 명확하게 이뤄져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지키면서 급성장 중이다.

옆 나라 일본만 놓고 봐도 확연한 차이를 알 수 있다. 일본의 STO 시장 규모는 나날이 커지고 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의 토권증권 발행액이 976억엔으로 2022년 166억엔 대비 6배 이상 증가했다. 미공개 사모로 발행된

토권증권을 포함한 시장 규모는 1000억엔 이상으로 추정된다. 일본은 STO 발행에 주식과 동등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2020년 5월 개정된 금융상품거래법에서 금융기관의 토권증권발행이 허용된 이후 토권증권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평가다.

일본 토권증권시장의 성장은 부동산 토권증권이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발행된 부동산 토권증권은 823억엔으로 일본 토권증권 시장의 85%를 차지했다. 우리나라보다 1년여 늦게 부동산 STO를 출시했지만 장내 거래소 개설 등 관련 제도가 잘 갖춰져 있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한 것이다.

일본은 정부가 시장 확대를 견인한 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STO 사업을 키울 수 있는 제도가 정비되지 않고 있다. 연구

기관에선 국내 토권증권 시장 규모가 2030년 367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등 토권증권 시장이 유망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음에도 제도화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속도를 냈으나 결국 법안 마련에 이르지 못했다. 지난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관련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 22대 국회가 개원했음에도 STO 제도와 관련된 연속성 있는 법안 마련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정치 늪에 빠져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디지털 시대는 속도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번 뒤처지면 따라잡기가 힘든 만큼 글로벌 STO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 당국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

/wkh@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7월 16일 (음 6월 11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모난 돌이 정 맞는 법이니 오늘은 자중. 48년생 끝없이 자식에게 의존 말고 길을 개척하라. 60년생 비빌 언덕이 있었으면 좋겠다. 72년생 시작해라 모든 일은 마 음먹기 나름. 84년생 평대신담도 있으니 기회는 늘 있게 마련이다.



37년생 친구와 한잔 술이 생각나는 날이다. 49년생 자기중심으로만 생각하면 조화가 깨진다. 61년생 세상에 대해 모르는 일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자. 73년생 슬픔이 지나고 뚝뚝의 기쁜 일이. 85년생 문서가 발동하니 매매도 생각해보자.



38년생 오늘은 기다리던 소식이 온다. 50년생 마른 눈에 물들어 오듯이 문제가 일시에 해결. 62년생 독단적인 일 처리로 타인의 원망을 듣는다. 74년생 레일을 벗어나지 말고 정도를 걷는 것이. 86년생 버틸 수 있다면 아직 희망은 있는 것.



39년생 돈이 없으면 비교당하기 마련. 51년생 사방으로 운이 열렸으니 미뤄뒀던 일을 마무리. 63년생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법. 75년생 내가 먼저 믿어야 상대도 설득 할 수 있다. 87년생 이력서를 냈으니 편안하게 하고 기다려라.



40년생 흥망성쇠가 있으니 평소 배풀자. 52년생 옛사람을 너무 그리워하면 사람 만나기가 어렵다. 64년생 오늘은 내일의 결과를 위해 조금 노력. 76년생 상쾌한 바람이 불어오니 일도 풀린다. 88년생 두드려도 열리지 않으면 애쓰지 마라.



41년생 무시하는 자식에게 의사 표현을 해라. 53년생 오늘은 불만이 있어도 속으로만 생각. 65년생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는 길도 물어서 가라. 77년생 영업목표 달성을 위해 현실에 대처하라. 89년생 좋은 습관이 주는 편안함을 극복하라.



42년생 원하던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으나 복병을 조심. 54년생 자식 때문에 근심이 많다. 66년생 결론은 내 뜻대로 밀고 나간다. 78년생 흘러간 세월을 그리워 말고 내 일을 준비할 시기. 90년생 외로움보다 참가 힘든 건 무엇보다 그리움.



43년생 오후에 교통사고 주의. 55년생 농친 고기를 안타까워 말고 내 것을 소중히. 67년생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 즐거운 하루. 79년생 전진과 후진은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다 기쁜 마음으로. 91년생 수호신이 보호하니 자긍심을 갖도록.



44년생 민망한 일을 당해도 당당하게 맞서라. 46년생 숨은 실력을 자랑하고 남들도 알아주는 기회가 온다. 68년생 결심을 했으면 행동으로 옮겨라. 80년생 돈거래는 늘 초심을 생각하고 노력하라. 92년생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45년생 걱정이 해소되고 마음이 편안하다. 57년생 새로운 인연을 만나 새로운 기회가 생긴다. 69년생 자신을 등불로 삼아 앞으로 나가라. 81년생 여진 친구를 만나 힘찬 지혜를 얻는다. 93년생 마음을 굳게 먹고 이직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



46년생 하늘에서 돈이 쏟아져도 만족을 모른다. 58년생 지치기 쉬운 날이니 건강에 신경. 70년생 관심 두지 말라 오히려 독이 된다. 82년생 학문을 쌓으면 어떤 역량을 발휘할지 모르는 김합이 온다. 94년생 눈앞의 실속을 챙기다 이익을 놓친다.



47년생 남의 잔치에 감 놔라 배 놔라 할 것 있겠는가. 59년생 남에게 잘하라고 하지 말 것. 71년생 잔피로 상대에게 희망 고문을 하지 마라. 83년생 바람이 불어오니 마음이 허전하다. 95년생 학식이 있어도 낮 놓고 기억 자를 모를 수가 있음이다.



김상회의四季

인수(印綬)의 지혜

사주에서 가문家門은 인수印綬의 역할에 있다. 인수는 윗대이므로 조상 가문이다. 인수가 잘 짜여 있으면 가문이 좋다. 재물로는 주택이 며 없으면 집 없는 천사 즉 내 집이 없다. 어머니요 선생이며 여자 사주에 인수가 별 불 일 없으면 여자 집안이 시어머니 될 분에게 안 찬다. 필자가 작은 사찰이라도 운영을 하니 스님들 왕래가 계속 있는데 사주 운세를 항상 물어온다. 절을 인수하고자 할 때 진중하지만 스님 사주에 인수가 없으면 주지 스님이 힘들다. 내 절이 없다. 인수는 시끄러운 것을 싫어한다. 인수가 없으면 덕이 없고 안일 무사하다.

평일 어느날 어느 젊은 남자가 상담을 청했다.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일하고 남은 시간은 자유롭게 사용하고 돈은 필요한 만큼 번는데 회사에 직장인이란 귀가 솔깃한 얘기다. 직종이 프리랜서다. 그러면서 더욱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하며 방문을 했다. 사주의 특성을 짚어보면 인수가 없으니 무엇보다 직장생활에 필수적인 규칙이나 인간관계를 못건뎐 한다. 직장은 어느 곳이나 관료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런 제약을 싫어한다. 집 없는 천사이듯 자유로운 영혼으로 필연적 프리랜서 형태로 일을 한다. 식신이나 상관 사주가 대다수 틀에 박힌 생활을 싫어한다. 인플루언서나 유튜브로 활동하기에 적합한 사주이기도 하다. 특정한 조직에 묶이지 않고 사람 스트레스도 덜 받고 시간을 자유로이 쓸 수 있다는 점을 매력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좋은 것만 있는 건 없다. 양이 있으면 음이 있고 음이 있으면 양이 있는 게 세상 이치다. 인수가 있어야만 사는 데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 장단점이 있다. 어떤 방식으로 일할 때 더 만족스럽고 더 잘할 수 있는지 생각하고 실행하는 게 사주팔자에서 알려주는 인생의 지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곳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고리즘을 공개합니다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6	8	7	1	9	2	8	9	2
2	9	8	9	6	8	1	2	7
2	1	9	7	2	8	8	9	6
9	9	2	8	7	6	2	1	8
7	8	2	1	9	9	6	8	8
1	6	8	8	9	2	2	7	9
8	2	9	6	8	1	7	9	9
8	7	6	2	2	9	9	8	1
9	2	1	9	8	7	6	8	2

9 8 6 8 2 7 2 1 9
2 8 9 6 1 8 7 9 2
1 2 7 2 9 9 8 8 6
9 1 8 2 8 2 9 6 7
7 9 2 1 8 6 9 8 2
6 2 8 7 9 9 1 2 8
8 7 1 8 2 2 6 9 9
8 6 9 9 7 1 2 2 8
2 9 2 9 6 8 8 7 1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473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577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서울시 “3년 내 세계 최대 가전·IT 박람회로 성장시킬 것”

제1회 스마트라이프워크

스마트도시 서울 체험 가능
전시관·시상식·포럼 등 구성
내년부터 해외기업 참여 전망



스마트라이프워크(SLW) 홍보 포스터. /서울시

단순한 기술 전시를 넘어 사람 중심의 동행·매력 가치와 철학이 담긴 첨단 기술 각축전이 서울에서 열린다.

서울시는 오는 10월 10~12일 강남 코엑스에서 '제1회 스마트라이프워크(SLW)'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SLW는 전시회(Exhibition)와 시상식(Prize), 포럼·회의(Forum·Conference)가 결합된 종합 정보통신기술(ICT) 박람회다. 시는 SLW를 3년 내 세계 최대 가전·IT 박람회인 CES로 성장시킨다는 목표를 다.

올해 행사에서는 '첨단기술이 바꾸는 도시 생활의 미래'를 주제로 전 세계 도시가 서울에 모여 기술 트렌드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혁신 기술이 일상

에서 구현되는 스마트도시 서울을 체험한다.

전시관은 첨단기술을 통해 변화한 미래 도시 일상을 체험하는 '쇼룸'과 국내 혁신기업의 글로벌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기업전시관'으로 구성된다. 코엑스의 1층 B2홀에 마련된 쇼룸에서는 ▲일상 속 로봇 ▲건강한 돌봄 ▲안전한 환경 ▲도시 속 습터 ▲주거의 변화 등 주

제별로 구현된 미래 도시공간의 라이프스타일 경험해볼 수 있다.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SK그룹 등 주요 대기업이 시와 협력해 하나의 쇼룸을 꾸밀 계획이다.

3층 C홀에는 약자동행기술, 모빌리티, 헬스케어·뷰티, 로보틱스 등 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의 기술과 제품을 소개하는 '기업전시관'을 만든다. 시정 철

학인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신기술 전시에 공간의 3분의 1을 할애할 예정이다.

시는 SLW에서 도시와 기업 간 수요를 일대일로 매칭해주는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SLW에 참가하는 해외 도시의 문제 해결을 위한 사전 수요 조사를 벌인 뒤 솔루션을 가진 국내기업을 미리 모집할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선정된 기업은 행사 당일 해외도시 시장을 직접 대면해 맞춤형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하게 된다.

다양한 국제 포럼과 컨퍼런스도 운영한다. 해외도시 시장이 참여하는 'Mayors 포럼', 기술 리더를 위한 '글로벌 CDO(Chief Digital Officer) 포럼', '스마트도시 성과공유 컨퍼런스'를 통해 세계 스마트도시 성과를 나눈다.

제2회 서울 스마트도시상 시상식도 열린다. 이 상은 서울시가 세계스마트시티기구(WeGO)와 함께 약자와의 동행 비전을 전 세계에 확산하고자 2022년 9월 제정한 상이다. 시는 SLW 메인

무대에서 국내의 도시 시장을 포함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람중심·기술혁신 등 총 21개 분야에 대한 시상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 약 2만명이 참여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국내 기업과 해외 도시 간 수주 계약 목표치를 묻는 말에 박진영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첫 행사인만큼 계약까지 성사된다는 목표를 갖는 게 무리가 될 수 있어 일단은 기업들과 도시의 대면 기회를 많이 만들어내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수주 실적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고 답변했다.

SLW를 한국판 CES로 부르기에 글로벌 우수 기업의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박 국장은 "올해 첫 행사는 서울시가 가진 자원 하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여러 기업이 참가해 우리의 기술력 수준을 해외도시에 알리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한계점을 인정하고 내년부터 해외 기업의 참여를 열어놓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대학·산림청 등과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

서울시교육청, 10개 기관과 '맞손' 56개 프로그램으로 현장 지원 강화
서경대·서울교대·숙명여대 등 선정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3일 서울 구로구 고척초등학교를 방문해 초1학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늘봄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이 2학기 늘봄학교 전면 시행을 앞두고 서울 소재 대학, 지역 사회 전문기관, 공공 기관 등 총 10개 기관과 56개 프로그램을 운영해 현장 지원 강화에 나선다. 이번 협력사업은 늘봄학교에 양질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교육청은 대학 연계 사업을 위해 참여 대학 공모 과정을 거쳐 서경대, 서울교대, 숙명여대 등 3곳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각 대학은 예술, 체육, 과학, 기초학력 등 대학별로 특화된 33개의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 124명을

지원한다. 참여 기업 또 한 공모를 통해 5개 전문기관을 선정했으며, 이들 기업은 '지역사회 전문기관 연계 지원 사업'을 통해 ▲드론 ▲전기자동차 ▲세계 문화

▲전통예술 ▲심리·정서 ▲스포츠 등 분야서 5개 늘봄학교 프로그램과 강사 100명을 지원한다.

산림청·산림복지진흥원의 협조 및 지원으로 진행되는 '공공기관 연계 지원 사업'은 저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학교적응 지원을 위한 놀이 ▲공예 중심의 낙엽아트메이커 ▲목공 체험 프로그램 등 18가지 숲교육 프로그램과 강사 170명 지원을 통해 환경·생태 인식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각 대학 및 기관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시교육청은 2학기 늘봄학교 연계 프로그램의 희망 수요를 파악해 지원학교에 프로그램을 매칭하고 운영비를 지원한다. /이현진 기자 hj@

인천시,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 열어

'통일 한마음 체육대회' 진행도
이달 말까지 '북한인권 체험전'

대회 순으로 진행됐다.

인천광역시시는 지난 13일 선학체육관에서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 및 통일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북한이탈주민의 자유를 향한 용기를 기리고 북한이탈주민의 권익을 향상시키며, 남북주민 간 통합문화 형성 및 통일인식 제고를 위해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 올해부터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정복 인천시장과 정해권 시의회 의장, 한도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천지역회의 부의장 등 주요 내빈과 북한이탈주민 및 자원봉사자 등 300여 명이 참여한 행사는 축하공연, 기념식, 체육

7월 12일부터 31일까지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에서는 ▲탈북상황을 가정한 방탈출게임 ▲야외 북한인권 전시관 ▲탈북예술인의 라이브 음악 및 페인팅 공연 등 '북한이탈주민의 날'과 연계한 부대행사 '통일문화 북한인권체험전'이 펼쳐질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미래의 행복한 삶을 개척하고자 고향을 떠나 인천에 정착을 결심한 북한이탈주민 여러분들의 용기가 지역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끄는 원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약 3천 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건강검진, 심리상담, 우수정착자 제주도 문화체험, 북한이탈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김민식 기자 kmmmm112@

서울시교육청, 국·수·영·AI코딩 집중지원

KT와 '기초탄탄 랜선야학' 운영

서울시교육청이 초·중·고교 학습지원 대상 학생의 국어, 수학, 영어 교과 보충과 인공지능(AI) 코딩교육 집중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부터 KT와 함께 '기초탄탄 랜선야학'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 2020년부터 KT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공백 해소를 위해 에듀테크를 활용한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운영해왔다.

올해부터는 시간 쉼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학생 기초학력을 높이기 위해 '기초탄탄 랜선야학'을 실시한다.

'기초탄탄 랜선야학'은 서울시교육청의 기초학력 보장 사업인 '책임교육학년제'와 '전환기 채용학기제' 일환으로 운영된다.

책임교육학년제란, 학생들의 학습 및 성장에 결정적 시기인 초3과 중1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해 언어, 수리,

디지털 소양 등 3대 핵심 소양 집중교육이다. 전환기 채용학기제는 학교급별로 졸업 시 최소한의 기초학력을 갖추고 상급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초6과 중3 학생을 집중 지원한다.

'기초탄탄 랜선야학'은 대학생 멘토와 학습지원대상학생을 1대2 또는 1대3으로 매칭해 국어, 수학, 영어 위주 교과보충과 AI 코딩교육을 제공하는 맞춤형 학습지도 프로그램이다. AI 코딩교육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은 KT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시험(AICE)에 참여해 교육 효과를 스스로 측정해 볼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된다. /이현진 기자

오늘의 날씨

7월 16일 (화)
음력 : 6월 11일

수도권 날씨
24~30°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해돋이 / 05:23 | 해질 / 19:53

지역별 날씨: 연천 22/30, 동두천 22/30, 가평 21/30, 파주 23/29, 서울 24/30, 양평 22/29, 수원 24/29, 용인 24/29, 평택 23/29, 백령도 21/26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트럼프 피격' 단독 범행?...총격 동기, 추가 계획 등 주요 의문점 남아
▲ 바이든 "트럼프 심각하게 안 다쳐 감사...총격 동기 아직 몰라" /사진 뉴스스

▲ 美공화 통합 국면?... '미운털' 헤일리로 연사로
▲ 중국 3중대회 개막...시진핑 "개혁 전면 심화" 보고



▲ 일본인 57% "기시다 총리, 9월 자민총재 선거서 출마 말아야" /사진 뉴스스
▲ EU, 순회의장국 헝가리 주재 회의 거부... '중립주진' 총리 탕



칼로리·도수↓
라이트 맥주
계절 왔다
니



Life

K-뷰티
디바이스 들고
중시장 정조준
L2



지역사회와 함께 차곡차곡... 내일의 '희망 저금통' 채워요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ESG 경영시대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는 1963년 경상남도 산청 하둔마을 회관에 처음 문을 열었다. 지역 단위 협동조합으로 첫선을 보이면서 금융혜택을 누리기가 어려운 도서산간 지역 주민의 저축을 도왔다. 60년이 흐른 지난해 말 기준 총자산 287조원, 고객수는 2200만명에 이른다. 지점은 본점을 포함해 3218곳이다. '개천에서 용 났다'는 말이 꼭 맞다.

체급이 커지고 있는 만큼 사회공헌활동과 ESG 경영에도 적극적이다.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사랑을 환원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포부다. '위기 상황을 함께 극복한다'는 뜻의 상부상조 정신을 토대로 설립한 금융기관인 만큼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이웃으로 거듭나겠다는 방침이다. 함께 성장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4대 핵심분야(소셜MG·그린MG·휴먼MG·글로벌MG)를 통해 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다.



최훈 새마을금고중앙회 지도이사(왼쪽 두번째)가 새마을금고 약수지점에서 열린 'MG희망나눔 용용적금' 첫 가입 행사에서 가입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하남시 나들초등학교 어린이들이 'MG가 그린 환경 교실'을 통해 청바지를 이용한 업사이클 교육을 듣고 있다.

◆ 저출생 위기 극복, 지역사회 환원

'소셜MG' 분야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사회와 상생을 통해 새마을금고의 정체성을 확립한다. 올해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생애 첫 통장 개설 출생아에게 1인당 최대 20만원의 '출생축하금'을 지원했다. 아울러 출생아를 대상으로 최대 연 12%의 금리를 제공하는 'MG희망나눔 용용적금' 상품을 개발했다. 5만좌까지 총 78억원의 이자를 조성했다.

전통시장, 골목상권을 이용하는 고객과 소통한다. 지역주민에게 생활용품 등 물품을 지급했다. 이어 MG체크카드와 연동해 지원금을 주는 '내수경제 활성화 지원사업'도 추진 중에 있다. 지난 2019년부터 4년간 지원 43억원 상당의 물품을 후원했다. 지난해에는 캐시백 형태로 총 3억3000만원을 마련했다. 올해 사업규모는 총 10억원으로 책정했다.

지난 2018년부터 'MG희망나눔 소셜성장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청년소셜벤처 130곳에 총 53억원의 ▲성장지원금 ▲홍보 및 컨설팅 ▲기업 간의 네트워크 형성 지원을 단행한다. 상생협력 모델을 구축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청년 마을·청년기업이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의 성격을 기반으로 사회문제 해결한다. 창업 아이디어를 실제 사업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10억원을 지급한다.

◆ 친환경 녹색성장, 취약계층 지원

'그린MG'는 친환경 녹색성장을 위해 추진 중인 분야다. 지난 2021년부터 전국 새마을금고인이 참여해 분기별로 캠페인을 진행했다. 걷기 실천을 통한 걸음 기부 활동인 '그린MG 걷기 좋은 날'을 올해로 4년째 추진 중이다. 그동안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임직원들만 참여하던 내부 행사였지만 올해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확대했다.

걷기 행사에는 시민 약 1만7000명이 참여했다. 목표 기부걸음인 10억 걸음을 초과 달성해 배려계층 노인 61명을 대상으로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1억원을 기부했다.

'휴먼MG'는 미래를 위한 투자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성장을 도모한다. 문화 및 생활복지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배려계층 지원사업의 비중을 높여나가겠다는 설명이다.

'사랑의 줌도리'는 전통을 자랑하는 행사다. 지난 1998년 시작했다. 그동안 회원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조성한 1143억원을 지역사회에 환원했다. 올해는 추진 기간을 기존 연 1회에서 상·하반기 각각 1회로 확대했다. 앞으로 사랑의 줌도리는 전국 새마을금고에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



1970년대 부녀자들이 마을금고에 저축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새마을금고 초청연수 중 구글 코리아에 방문한 피지 농어촌개발부 공무원 등 연수생들이 피지 새마을금고 디지털 전환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도서산간 주민 저축 도우며 문 열어 상부상조 정신으로 지역사회와 상생

저출생 극복 위한 '출생축하금' 지원 4년째 걷기행사 열어 걸음기부금 전달 자립준비청년 진로교육, 후원금 마련

개발도상국에 새마을금고 모델 전파 금융교육, 저축장려 등 자산관리 도와

할 계획이다.

청소년 보호시설을 후원해 자립을 돕는다. 그룹홈과 자립 준비 청년을 지원하는 'MG드림 하우스' 사업을 지난 2021년부터 추진했다. 그룹홈 총 26곳에 8억원을 기부했다. 하반기에는 그룹홈 12곳의 주거환경 개선과 자립 준비 청년 50명의 홀로서기를 위해 진로교육을 마련하고 후원금 4억원을 전달할 예정이다.

◆ 세계로 뻗어 나가는 후원 사업

'글로벌MG'는 기술 원조로 전 세계 금융소외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새마을금고 모델을 전파하는 사업이다. 특히 개발도상국에 새마을금고 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절약 및 저축을 도와 마을주민 스스로 자금을 조성하게 만들어 자립 능력을 키운다. 빈곤 감소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새마을금고 금융포용시스템을 전수한다. 한국의 대표 금융 공적원조(ODA) 사업이란 설명이다. 지난 2016년 미얀마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우간다, 라오스 3개국에 새마을금고가 57곳을 설립했으며 1만7000명의 회원을 모집했다.

사업 대상국을 피지와 캄보디아로 확대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총 10일간 MG새마을금고 인재개발원에서 피지 새마을금고 전국 확산을 위한 초청연수를 펼쳤다. 피지 농어촌개발부와 협동조합부 등 2개 부처와 공무원, 마을주민 등 총 10명이 머리를 모았다.

캄보디아 진출에도 눈길이 간다. 지난해 캄보디아에서 '새마을금고 금융포용모델 사업 소개 워크숍'을 진행하면서다. 앞서 캄보디아 농촌개발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한 온라인연수가 가교 역할을 했다. 앞으로 캄보디아 내 금융교육과 저축장려 등 동등 자산 확대 방안을 함께 고민할 계획이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 김인 회장은 "사회가 지속 가능한 성장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만큼 기업의 ESG 경영이 사회 핵심 키워드로 부상했다"며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새마을금고는 사회공헌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 가능한 금융협동조합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스페인, 잉글랜드 꺾고 유로 2024 우승... 통산 4번째 정상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인생 마지막 도전...응원 부탁" /사진 뉴스스

▲김하성, 애틀랜타전서 안타·볼넷·도루·득점...타율 0.226로 전반기 마감
▲방탄소년단 진, '파리 올림픽' 성화봉송에 '인산인해' 큰 환호성



▲한국 사격, 8년 만에 '금빛 총성' 도전 /사진 뉴스스
▲'포스트 장미란' 박혜정, 역대 '도쿄 노메달' 설욕 선봉장